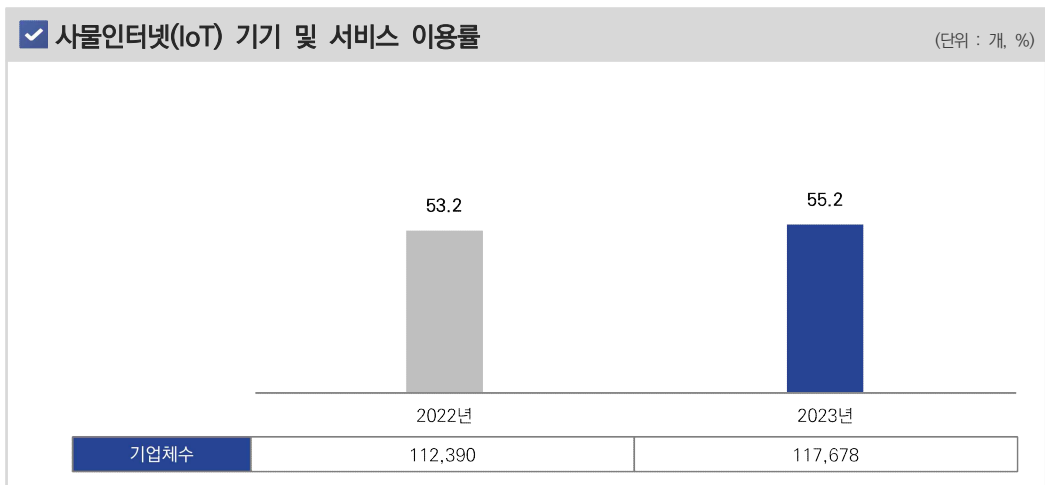


1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

1.1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

-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55.2% 수준으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사물인터넷 이용률은 2.0%p 증가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87.7%), 숙박 및 음식점업(82.7%), 교육서비스업(81.4%) 등의 순으로 사물인터넷(IoT)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부동산업(26.8%), 농림수산업(27.0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28.6%) 등은 사물인터넷(IoT)의 이용률이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사물인터넷(IoT)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특히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에서는 사물인터넷(IoT)의 이용률이 70.6%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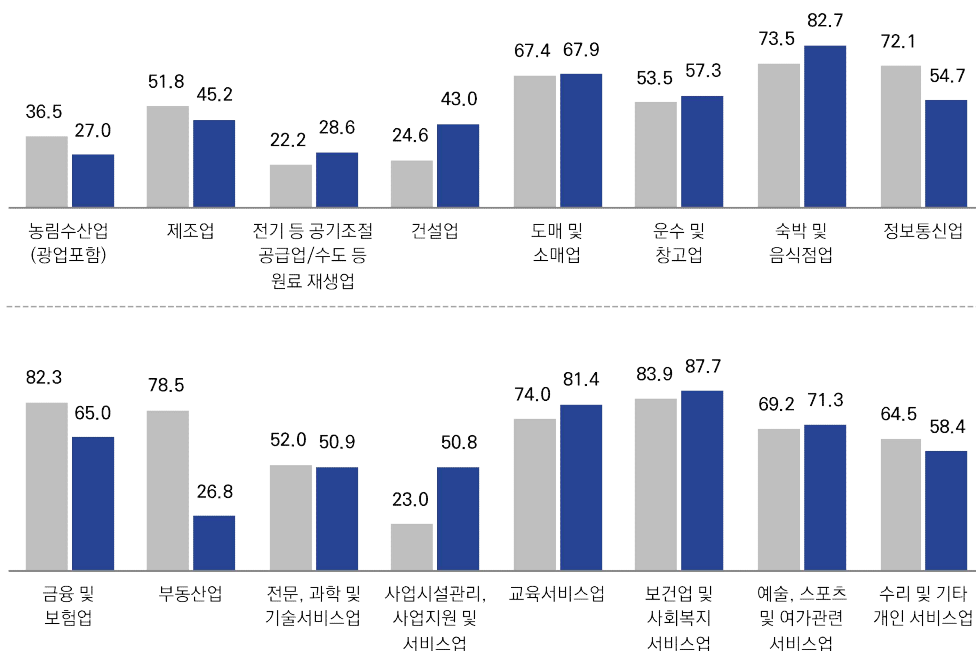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개인사업체가 68.6%로 회사법인(51.5%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업종별_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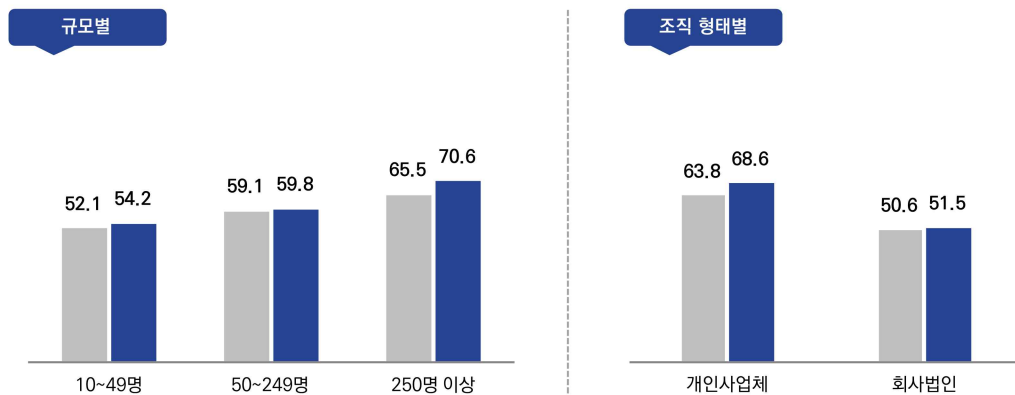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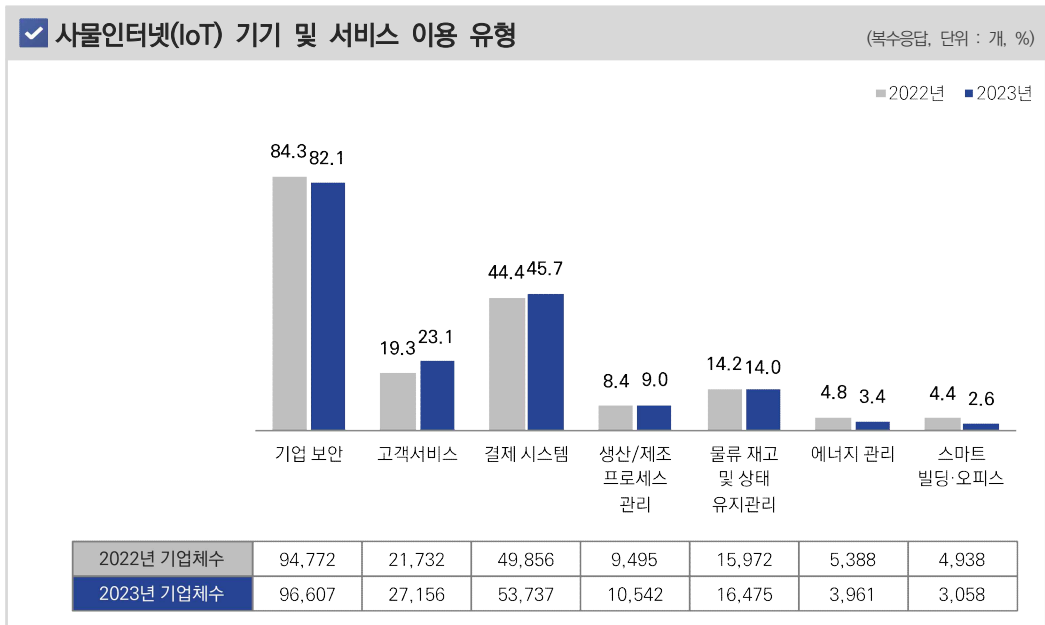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1.2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유형(복수응답)

-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‘기업 보안’(82.1%) 서비스로 조사됨
- 다음으로 ‘결제 시스템’(45.7%), ‘고객 서비스’(23.1%), ‘물류 재고 및 상태 유지관리’(14.0%)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유형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기업 보안’은 금융 및 보험업(97.6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(94.1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재생업(92.4%)에서 높게 나타남
- ‘결제 시스템’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95.9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84.0%), 숙박 및 음식점업(77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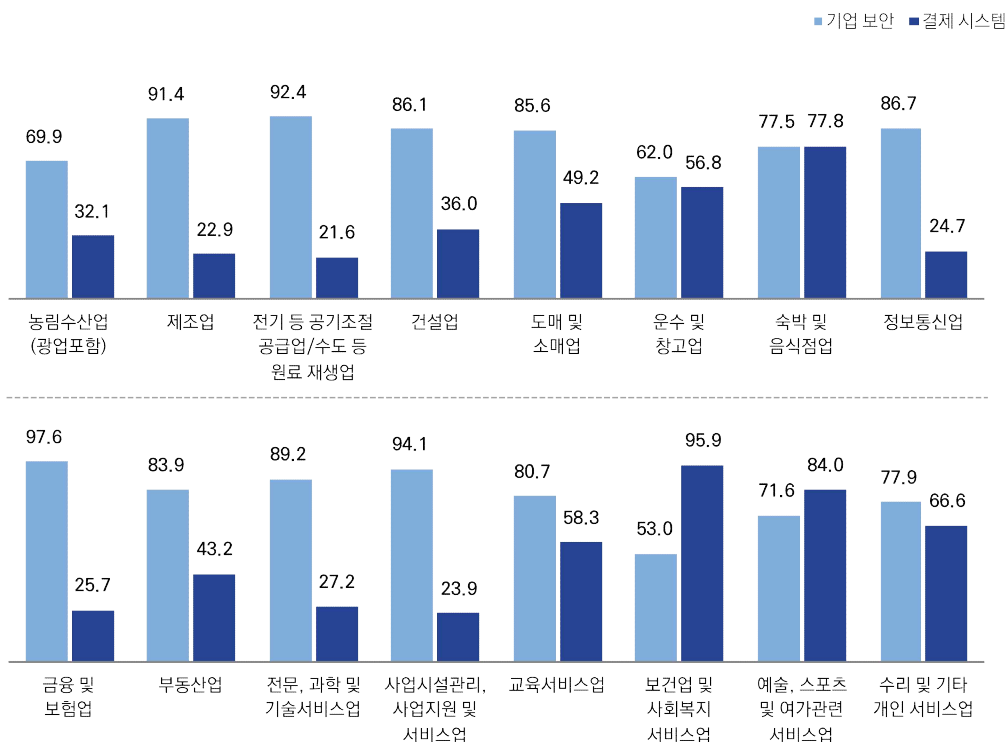
- ‘기업 보안’은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(87.6%)에서 타 규모보다 높게 조사됨
- ‘결제 시스템’은 10~49명 규모 기업체(46.0%)에서 50명 이상 기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기업 보안’은 회사법인(87.3%)이 개인사업체(67.9%)보다 높게 나타남
- 반면, ‘결제 시스템’은 개인사업체(75.4%)에서 회사법인(34.7%)보다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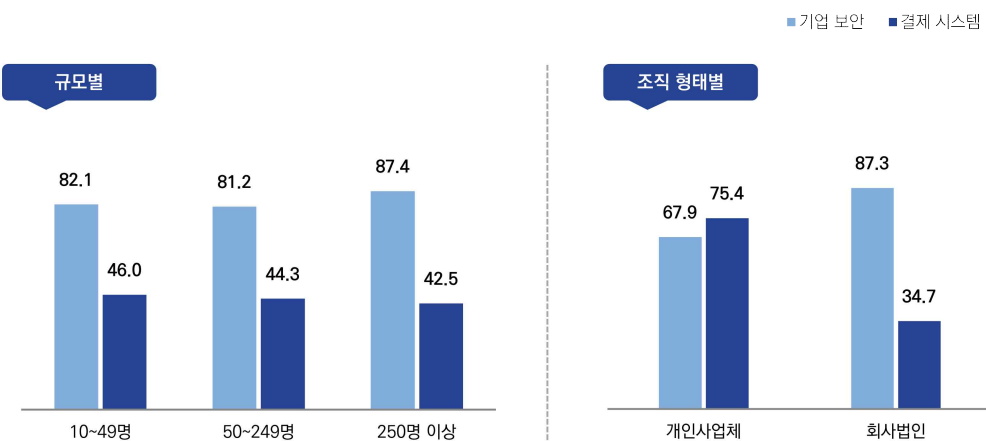
✓ 업종별_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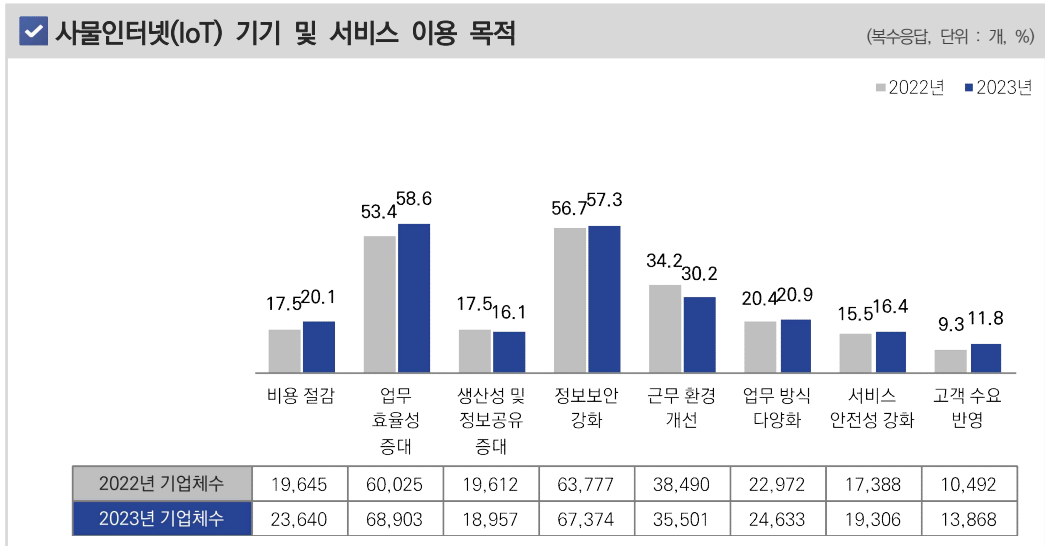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1.3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목적(복수응답)

-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의 이용 목적으로는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가 58.6%로 가장 높으며, 다음으로 ‘정보보안 강화’(57.3%), ‘근무 환경 개선’(30.2%), ‘업무 방식 다양화’(20.9%)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목적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86.8%), 운수 및 창고업(80.7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79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‘정보보안 강화’는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81.6%), 금융 및 보험업(70.2%), 제조업(73.4%)에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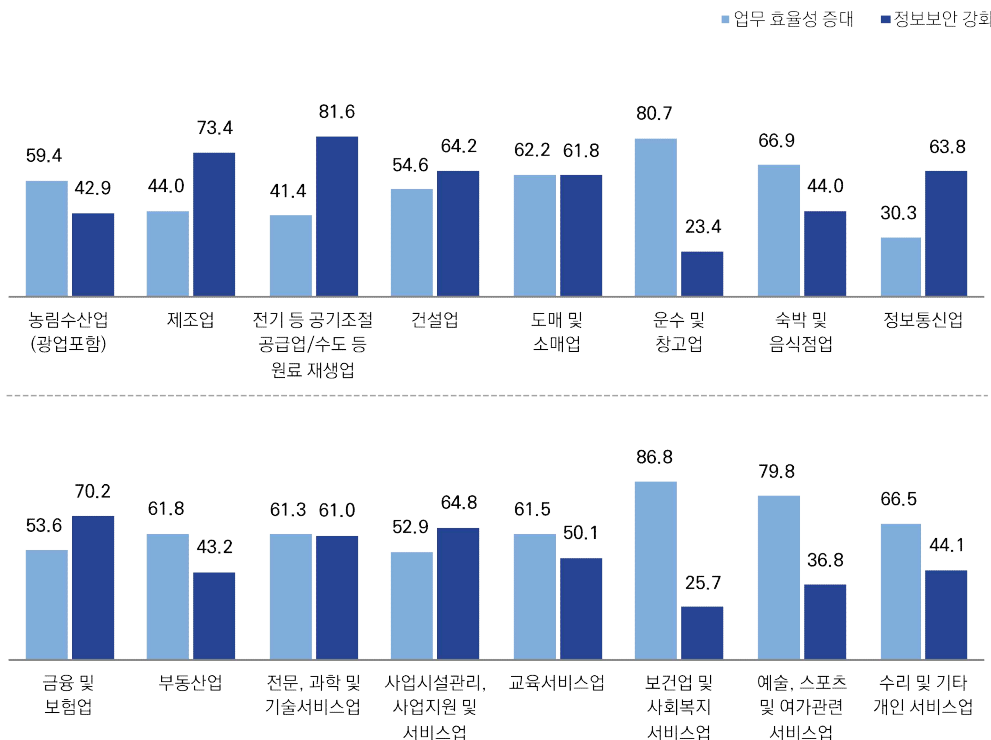
-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와 ‘정보보안 강화’ 모두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(각각 65.3%, 57.8%)에서 타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는 개인사업체(68.9%), ‘정보보안 강화’는 회사법인(63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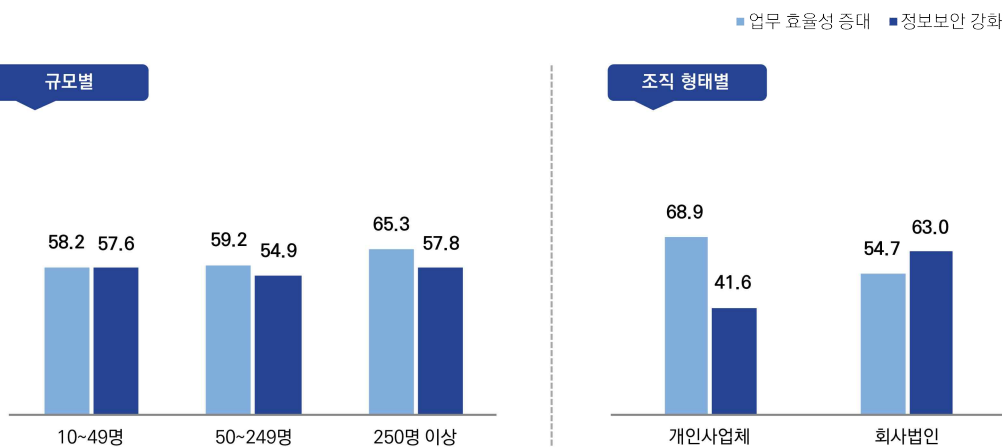
✓ 업종별_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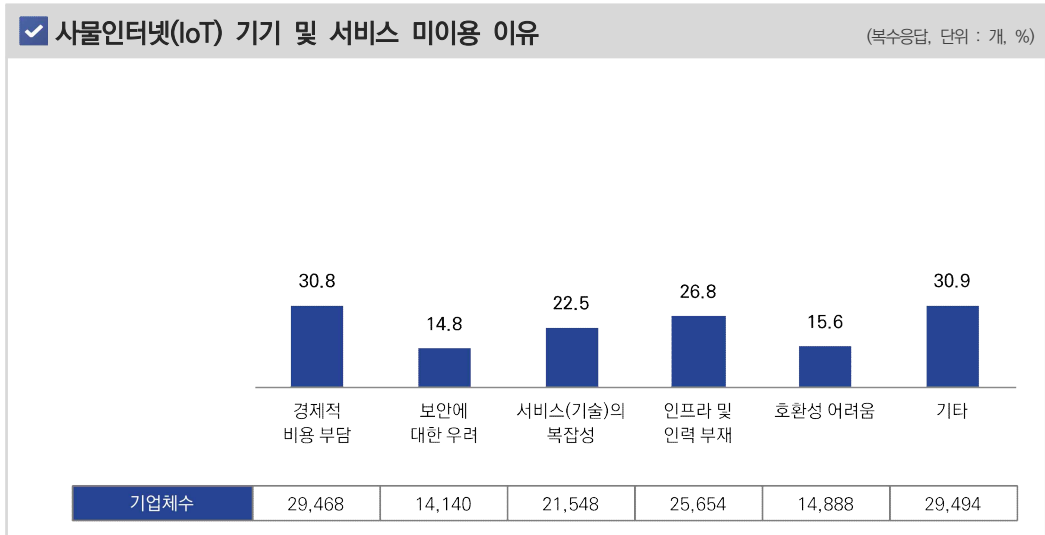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1.4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(복수응답)

-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미이용 기업체의 미이용 이유로는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이 30.8%로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는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(26.8%), ‘서비스·기술의 복잡성’(22.5%) 등이 높게 나타남
- 기타 응답으로는 ‘이용 필요성 부재’가 높게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미이용 기업체
 ※ 주 : 1)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별 복수응답 수치임
 2) 전년 대비 보기 항목이 변경되어 시계열 비교 없음

[업종별]
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은 정보통신업(61.4%), 부동산업(40.6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38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는 운수 및 창고업(40.5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39.1%)에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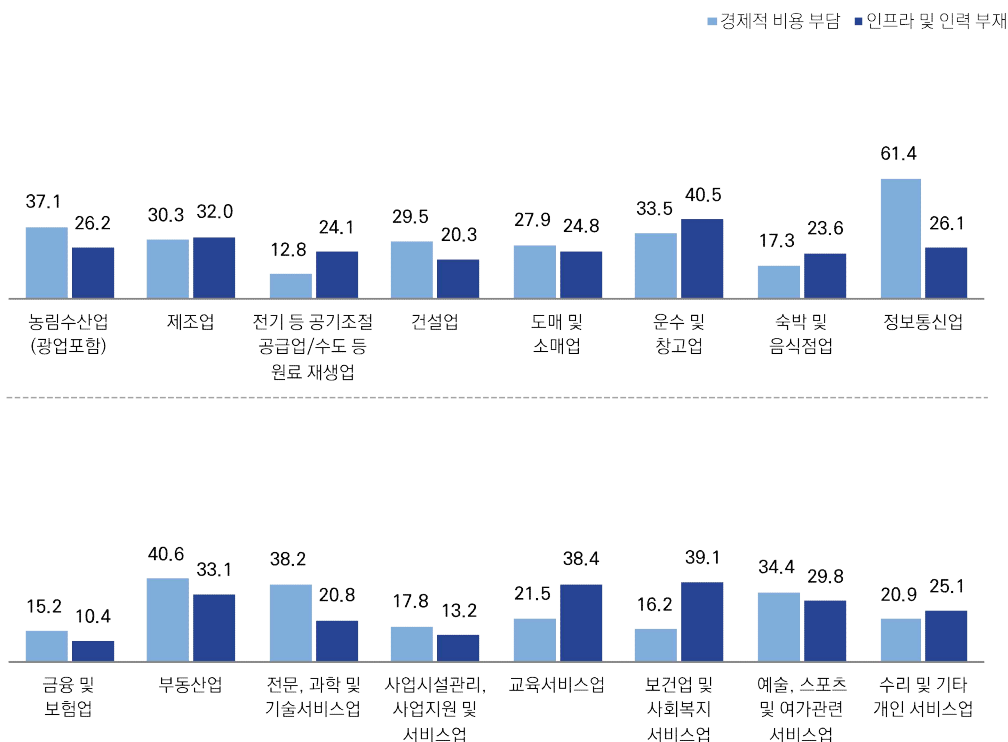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은 250명 이상 기업체에서 38.2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는 종사자 규모별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

[조직 형태별]
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은 회사법인이 32.1%로 개인사업체(23.7%)보다 높게 나타남
-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는 개인사업체가 30.1%로 회사법인(26.2%)보다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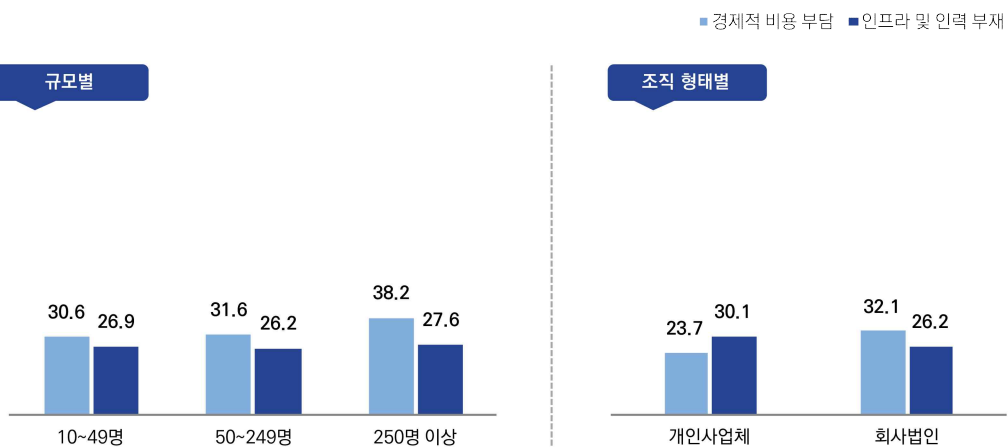
✓ 업종별_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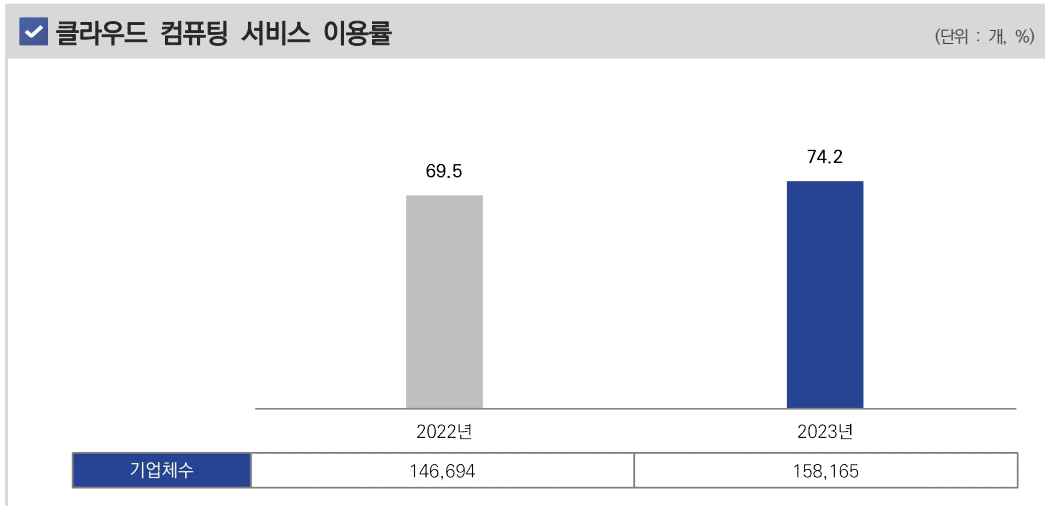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

2.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

-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률은 74.2% 수준으로 조사됨
- 전년 대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률은 4.7%p 증가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교육서비스업(85.0%), 금융 및 보험업(84.3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83.8%)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반면, 부동산업(48.4%), 숙박 및 음식점업(53.6%) 등은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-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에서 83.0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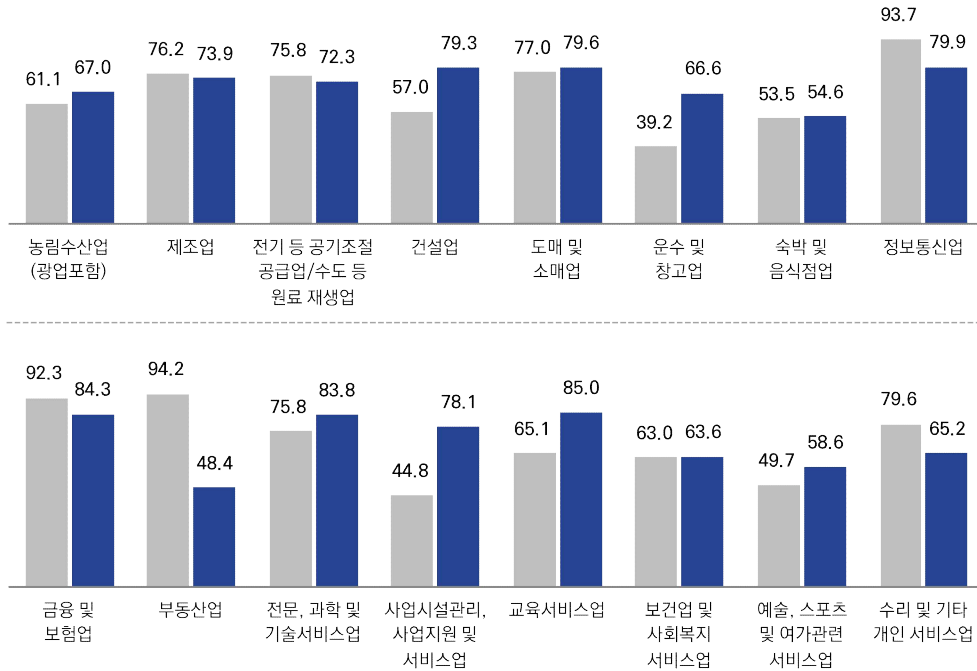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이 77.3%로 개인사업체(63.0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✓ 업종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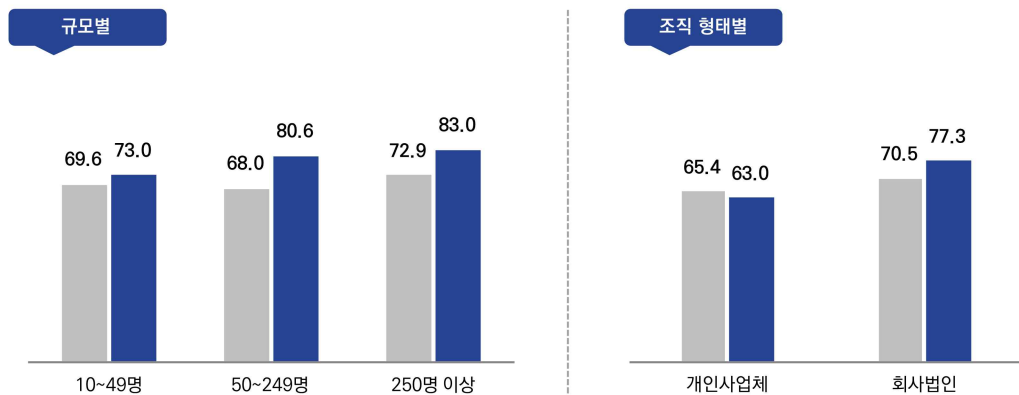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률
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1. 정보화 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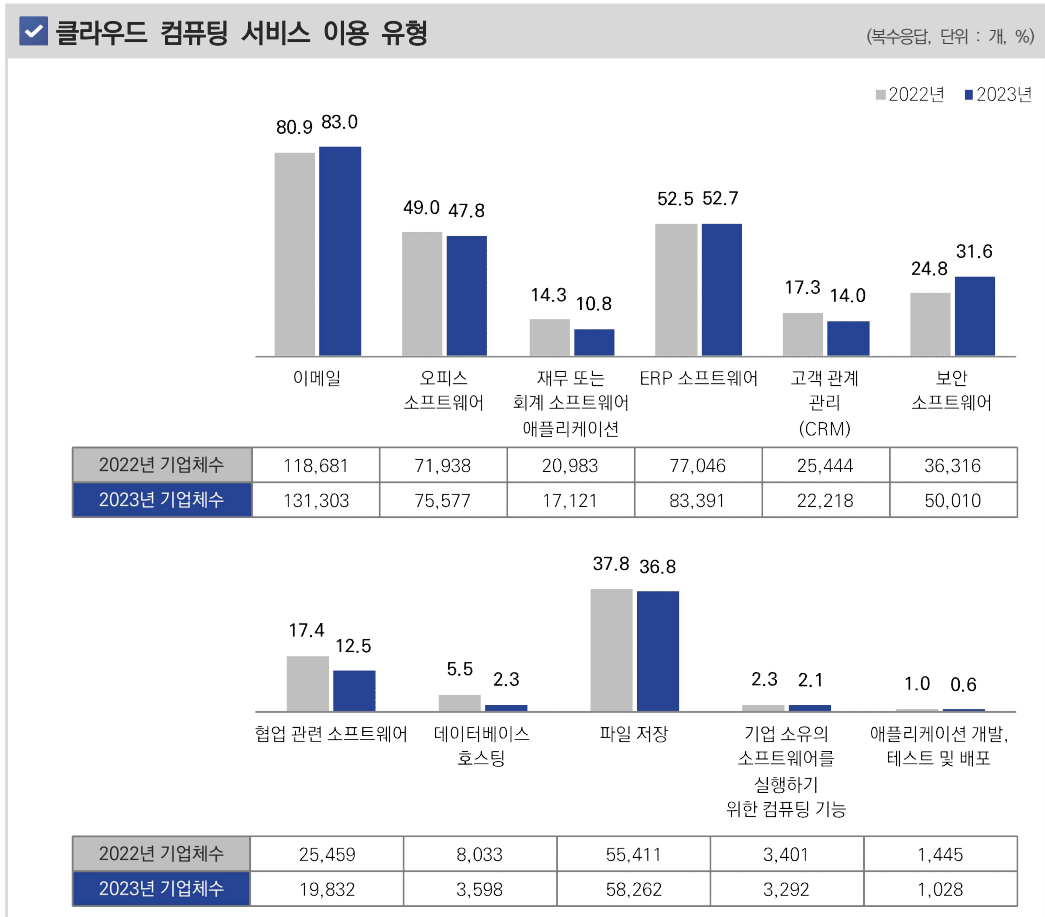
2. 정보화 응용

3. 지능정보기술 활용

4. 정보화 투자 및 효과

2.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유형(복수응답)

-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'이메일'(83.0%)로 조사됨. 다음으로 'ERP 소프트웨어'(52.7%), '오피스 소프트웨어'(47.8%), '파일 저장'(36.8%), '보안 소프트웨어'(31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유형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'이메일'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92.7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(90.3%), 건설업(90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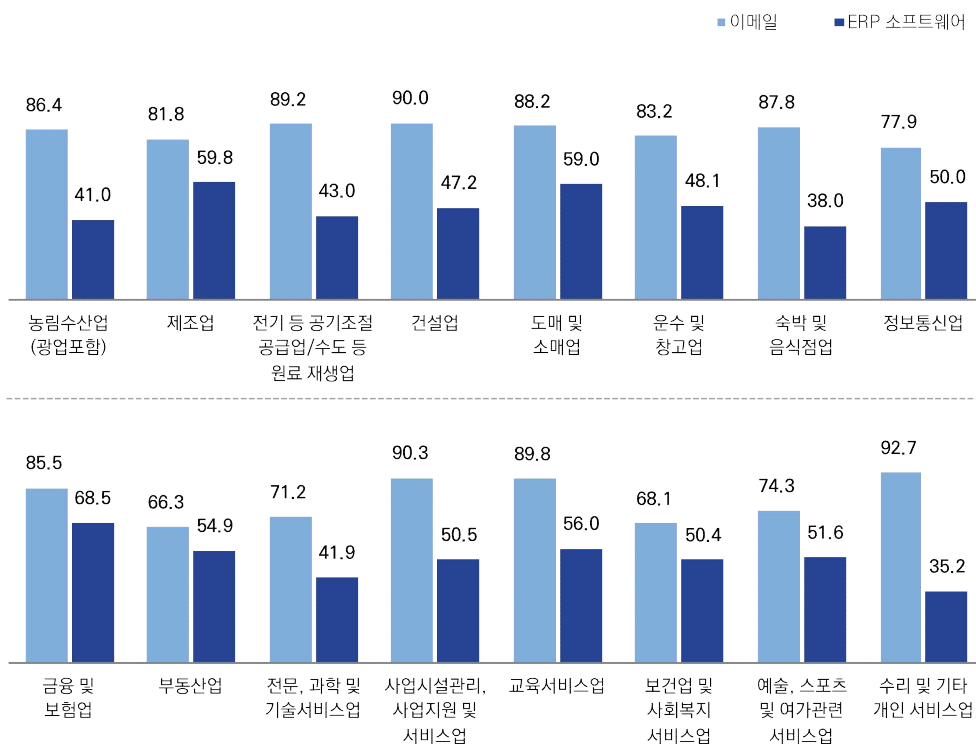
- '이메일'은 규모가 작을수록, 'ERP 소프트웨어'는 규모가 클수록 더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'이메일'과 'ERP 소프트웨어' 모두 회사법인(각각 83.8%, 55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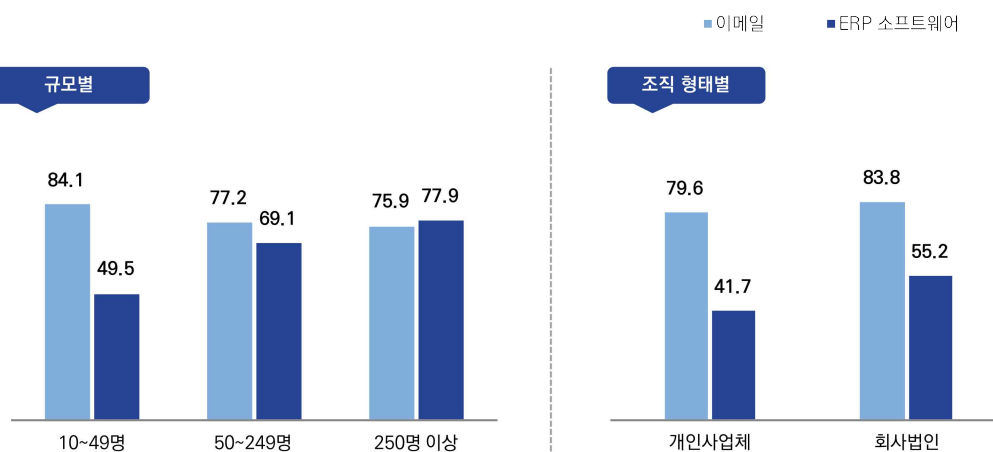
업종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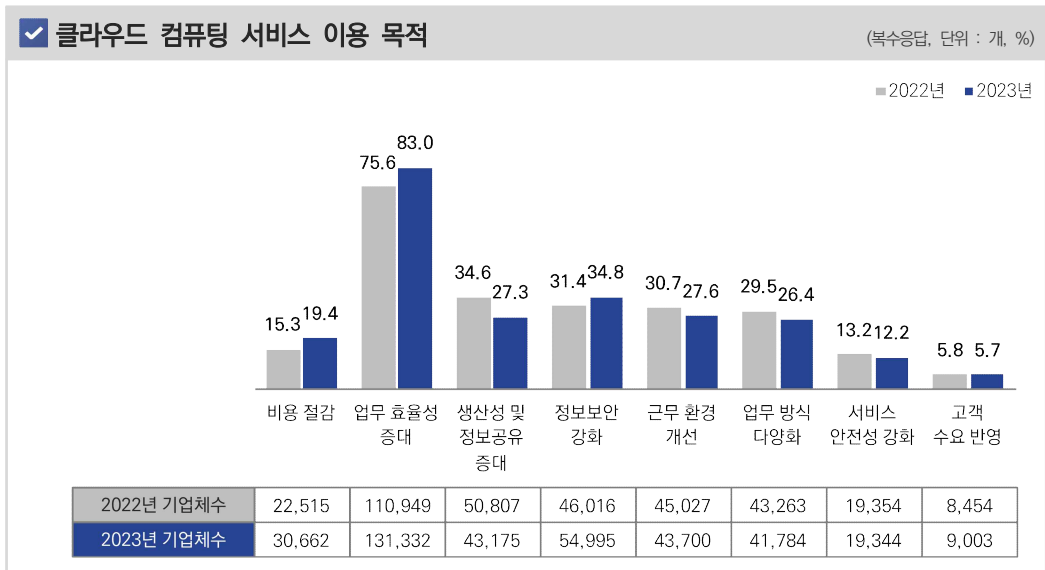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2.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목적(복수응답)

-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업체의 이용 목적으로는 '업무 효율성 증대'가 83.0%로 가장 높으며, 다음으로 '정보보안 강화'(34.8%), '근무 환경 개선'(27.6%), '생산성 및 정보공유 증대'(27.3%), '업무 방식 다양화'(26.4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목적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'업무 효율성 증대'는 정보통신업(90.5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89.9%)에서 높게 나타남
- '정보보안 강화'는 금융 및 보험업(42.7%), 제조업(42.0%), 도매 및 소매업(41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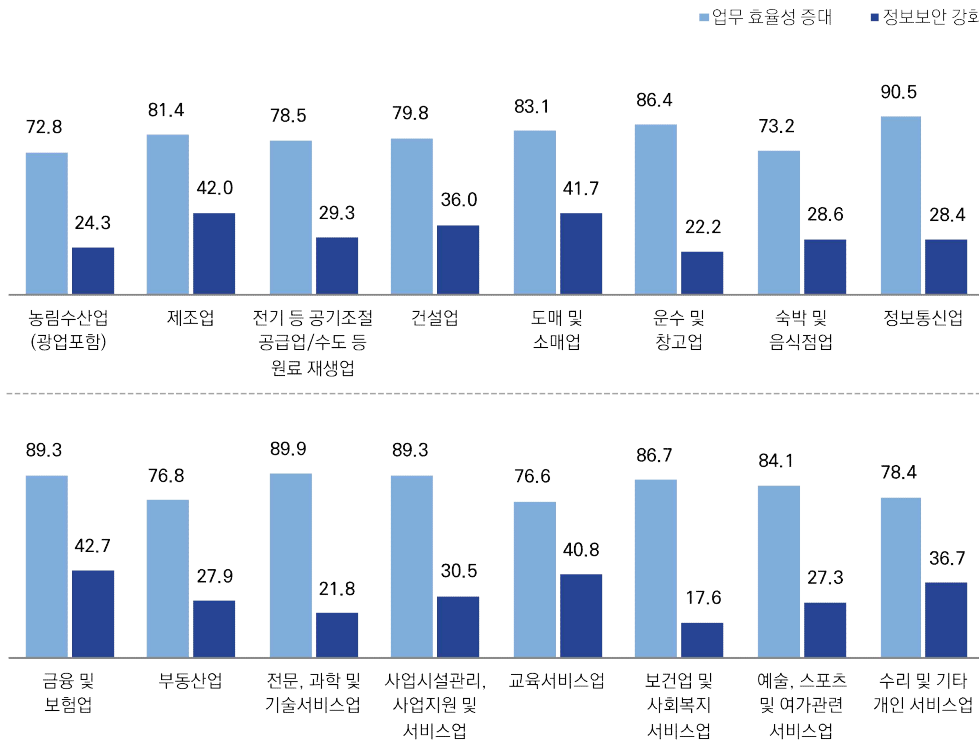
- '업무 효율성 증대'와 '정보보안 강화' 모두 종사자수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(각각 86.0%, 41.9%))에서 타 규모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'업무 효율성 증대'와 '정보보안 강화' 모두 회사법인(각각 83.5%, 37.0%)에서 개인사업체(각각 81.0%, 24.8%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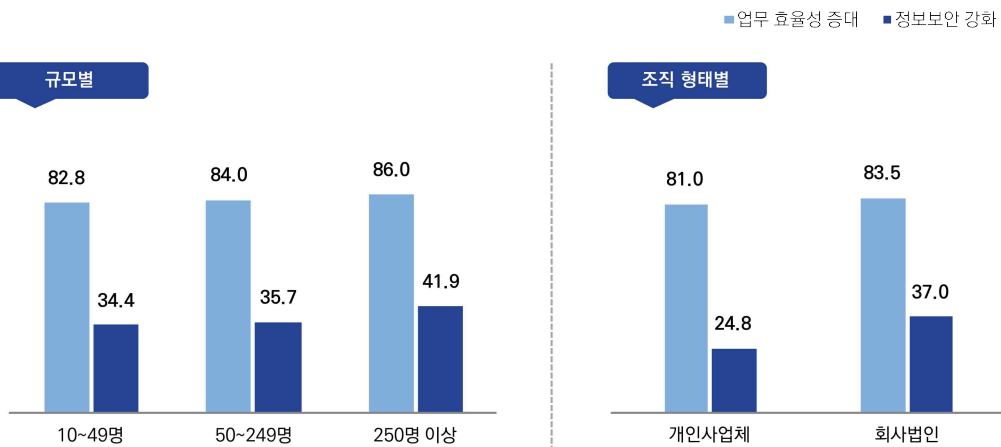
업종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1. 정보화 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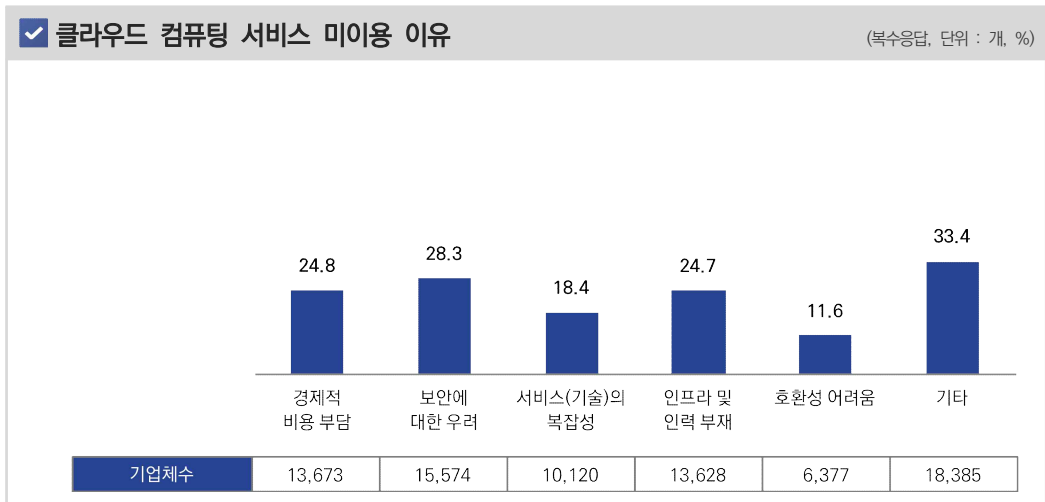
2. 정보화 응용

3. 지능정보기술 활용

4. 정보화 투자 및 효과

2.4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미이용 이유(복수응답)

-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미이용 기업체의 미이용 이유로 '보안에 대한 우려'(28.3%)가 가장 높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'경제적 비용 부담'(24.8%), '인프라 및 인력 부재'(24.7%) 등의 이유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
- 기타 응답으로는 '이용 필요성 부재'가 높게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미이용 기업체
 ※ 주 : 1)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미이용 이유별 복수응답 수치임
 2) 전년 대비 보기 항목이 변경되어 시계열 비교 없음

[업종별]

- '경제적 비용 부담'은 정보통신업(38.5%), 건설업(37.7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35.2%)에서 높게 나타남
- '보안에 대한 우려'는 정보통신업(70.1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60.4%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38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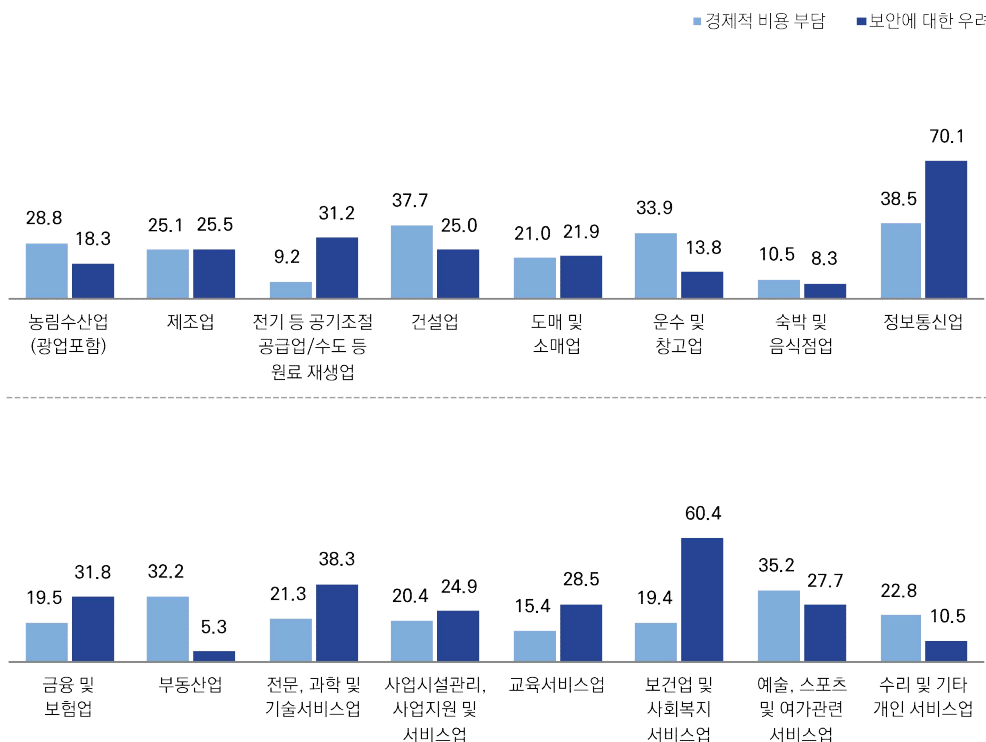
- '보안에 대한 우려'는 250명 이상 기업체에서 41.6%로 타 규모에 비해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'경제적 비용 부담'은 개인사업체(16.6%)보다 회사법인(28.5%)에서 높게 나타남
- '보안에 대한 우려'는 회사법인(27.8%)보다 개인사업체(29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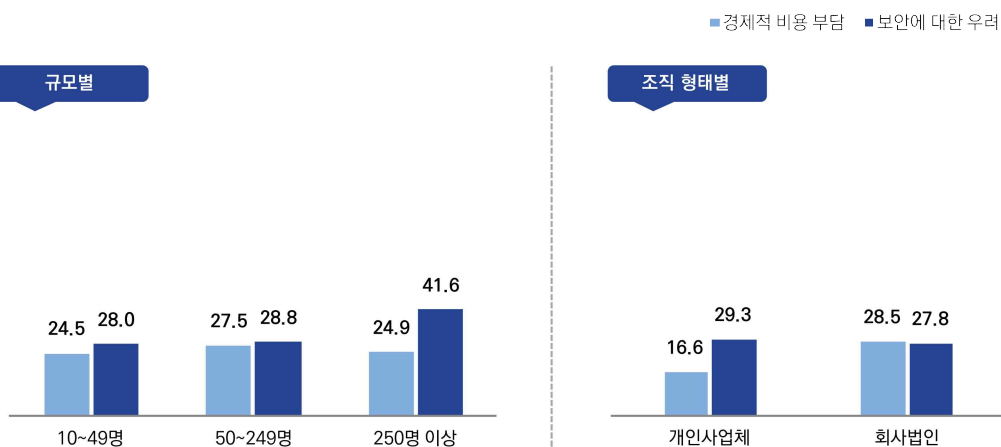
업종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미이용 이유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미이용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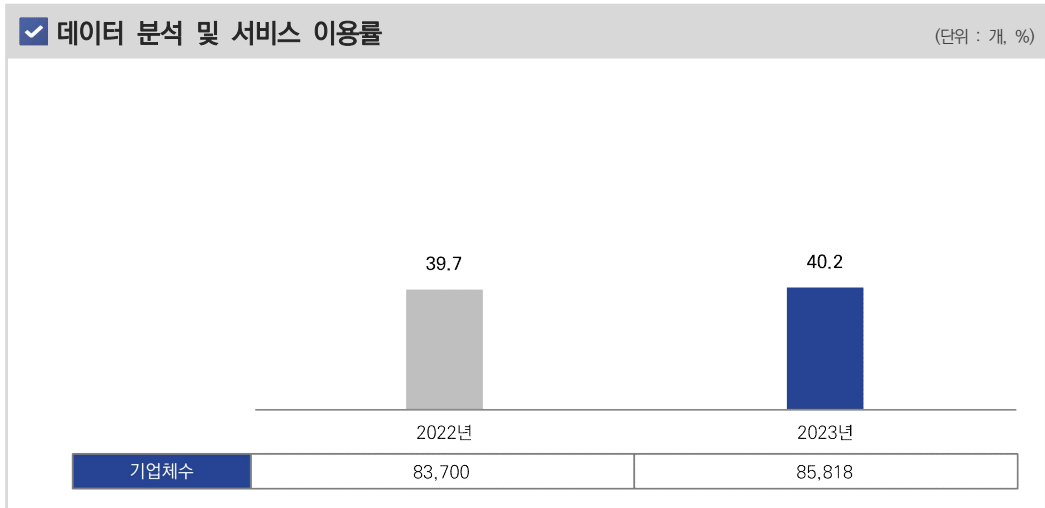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3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

3.1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

-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률은 40.2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교육서비스업(62.1%), 금융 및 보험업(55.9%), 건설업(55.3%) 등의 순으로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23.8%), 부동산업(25.9%)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250명 이상 규모에서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률이 67.2%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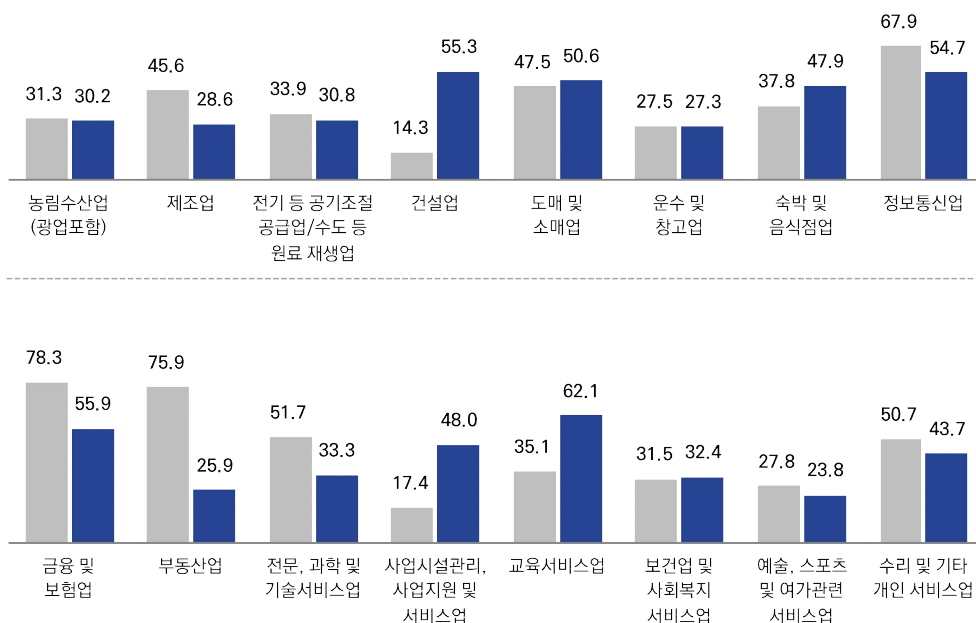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이 42.1%로 개인사업체(33.5%)에 비해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
업종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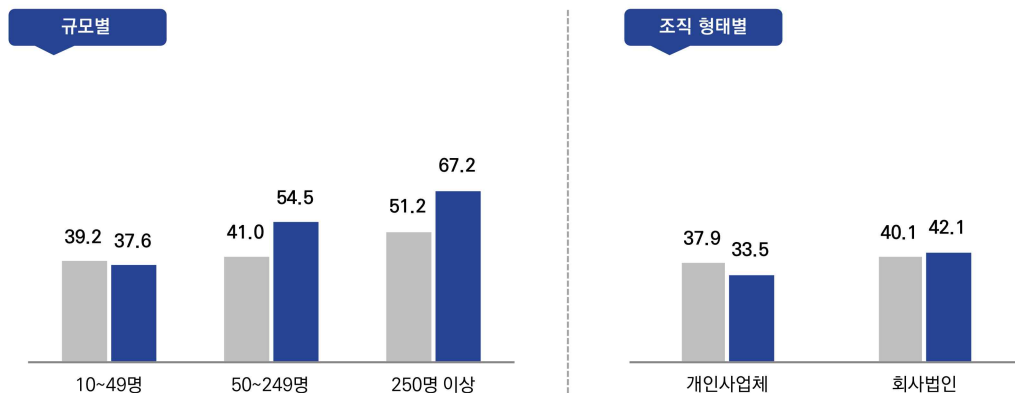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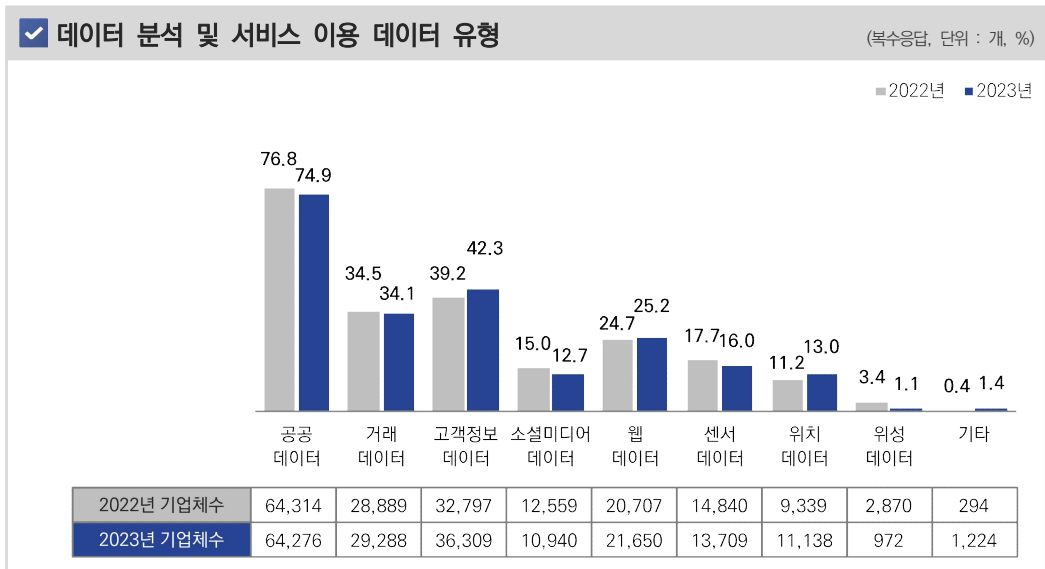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3.2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데이터 유형(복수응답)

-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 유형으로 ‘공공데이터’가 74.9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이어서 ‘고객정보 데이터’(42.3%), ‘거래데이터’(34.1%), ‘웹데이터’(25.2%), ‘센서 데이터’(16.0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데이터 유형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공공데이터’는 건설업(88.7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(83.5%)에서 높게 나타남
- ‘고객정보 데이터’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85.8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71.9%)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70.5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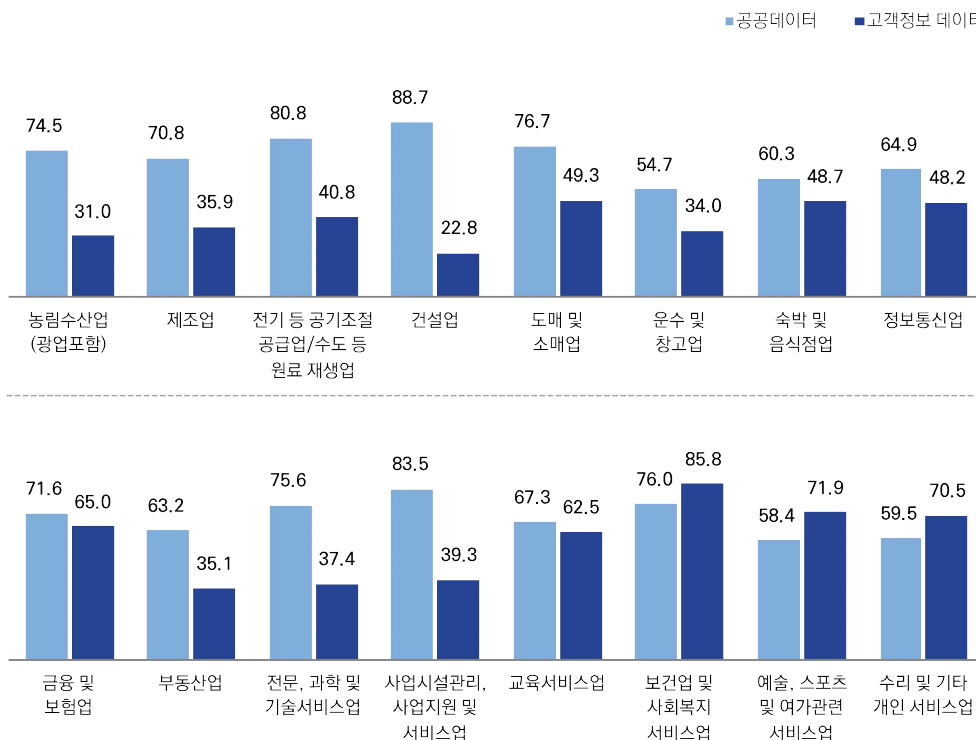
- ‘고객정보 데이터’는 종사자수 250명 이상 기업체(51.1%)에서 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공공데이터’는 회사법인(75.9%)이 개인사업체(70.3%)보다 높게 나타남
- ‘고객정보 데이터’는 개인사업체(58.9%)에서 회사법인(38.7%)보다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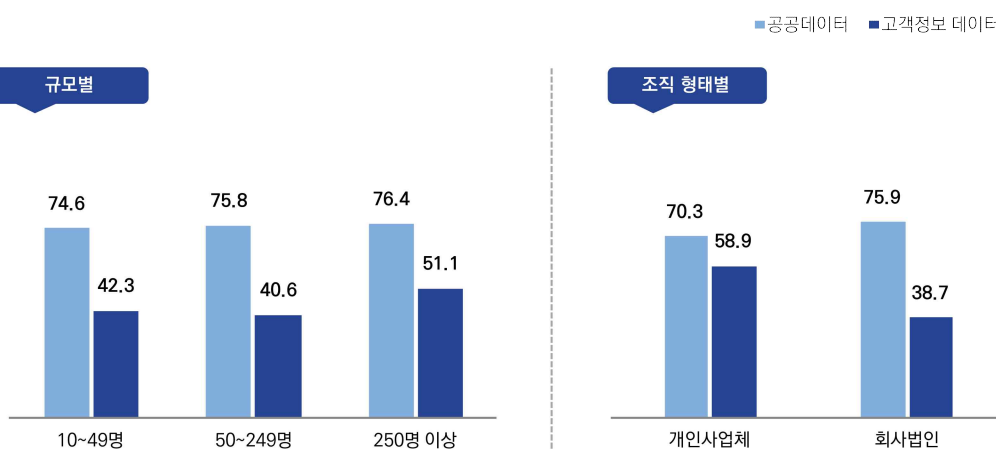
업종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데이터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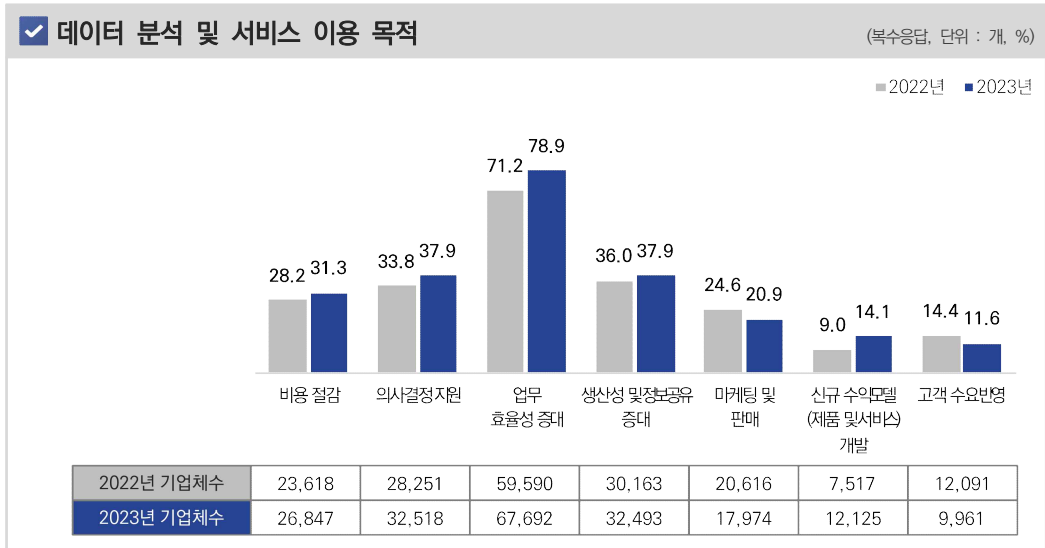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데이터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3.3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목적(복수응답)

-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의 이용 목적으로는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가 78.9%로 가장 높으며, 다음으로 ‘의사결정 지원’(37.9%), ‘생산성 및 정보공유 증대’(37.9%), ‘비용 절감’(31.3%), ‘마케팅 및 판매’(20.9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목적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의사결정 지원’은 건설업(46.2%), 도매 및 소매업(44.4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(40.6%)에서 높게 나타남
-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는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90.7%), 교육서비스업(88.9%), 부동산업(88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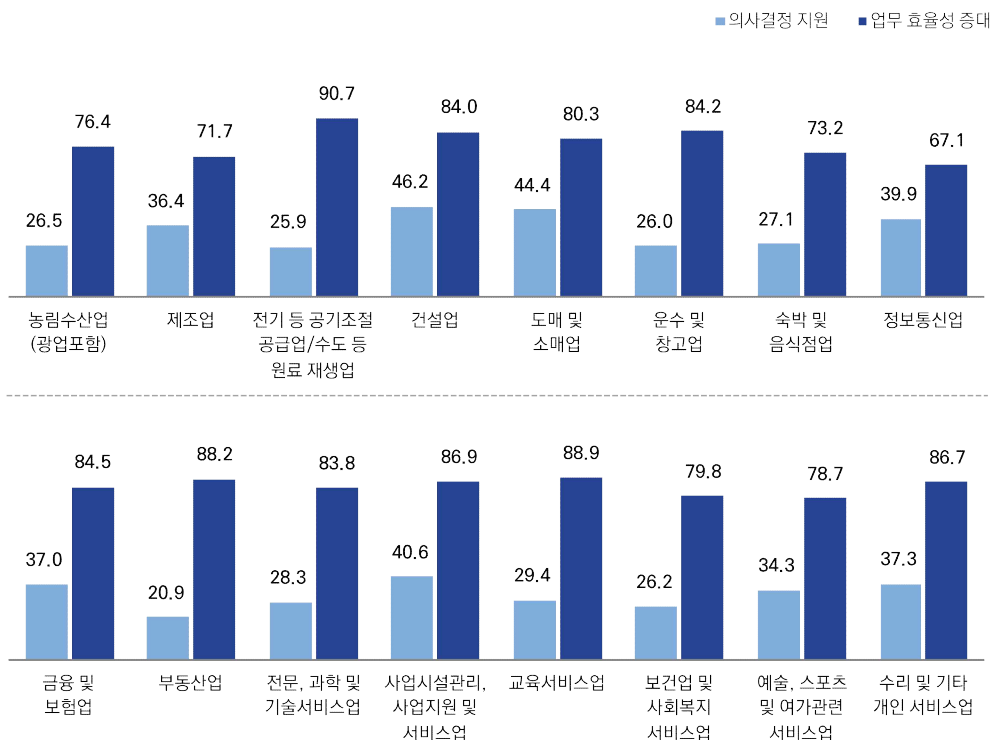
- ‘의사결정 지원’,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 모두 종사자 규모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(각각 40.1%, 84.6%)에서 타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의사결정 지원’과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 모두 회사법인(각각 39.3%, 79.3%)에서 개인사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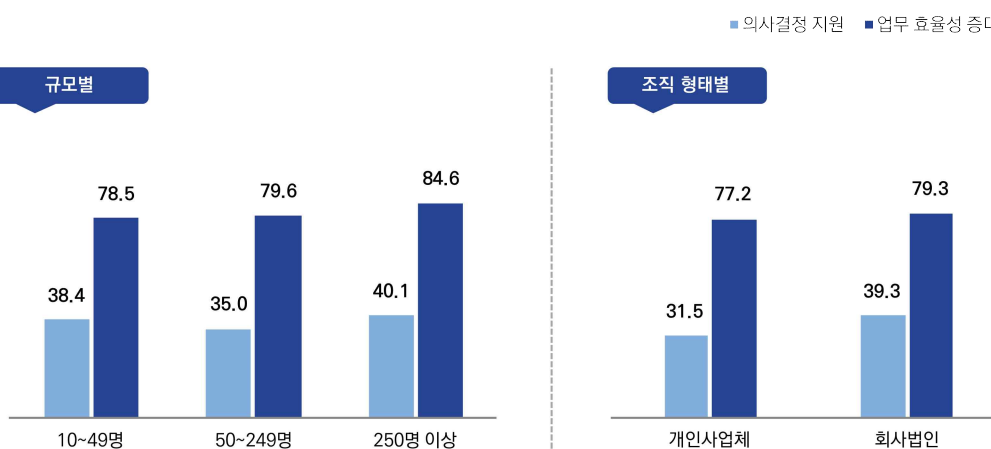
업종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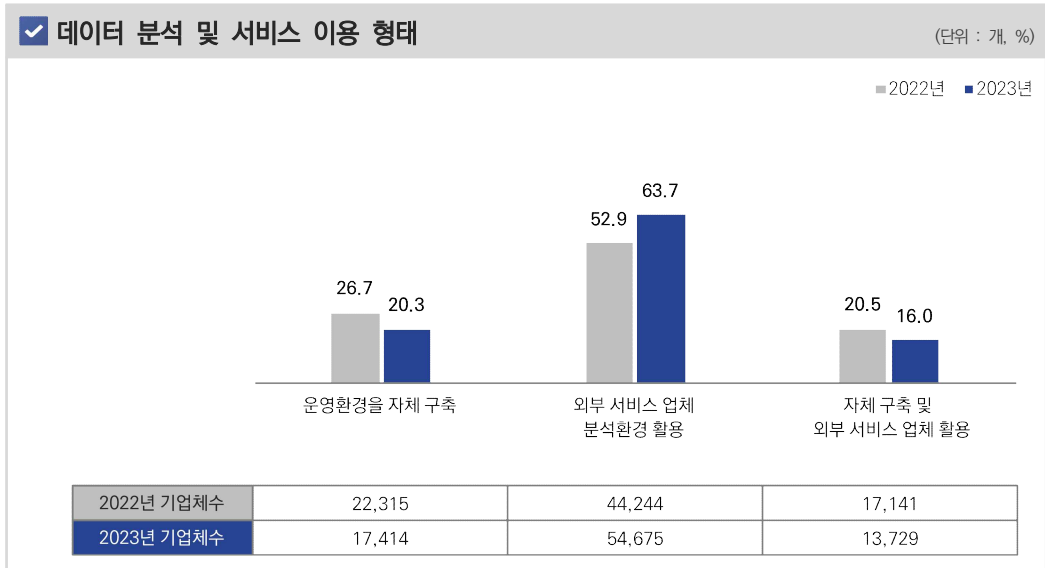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3.4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형태

-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의 이용 형태로는 '외부 서비스 업체 분석환경을 활용'한다는 기업이 63.7%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'운영환경을 자체 구축'(20.3%), '자체 구축 및 외부 서비스 업체 활용'(16.0%)의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
[업종별]

- '운영환경을 자체 구축'은 정보통신업(46.2%), 제조업(29.2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24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'외부 서비스 업체 분석환경 활용'은 숙박 및 음식점업(78.1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(76.5%)에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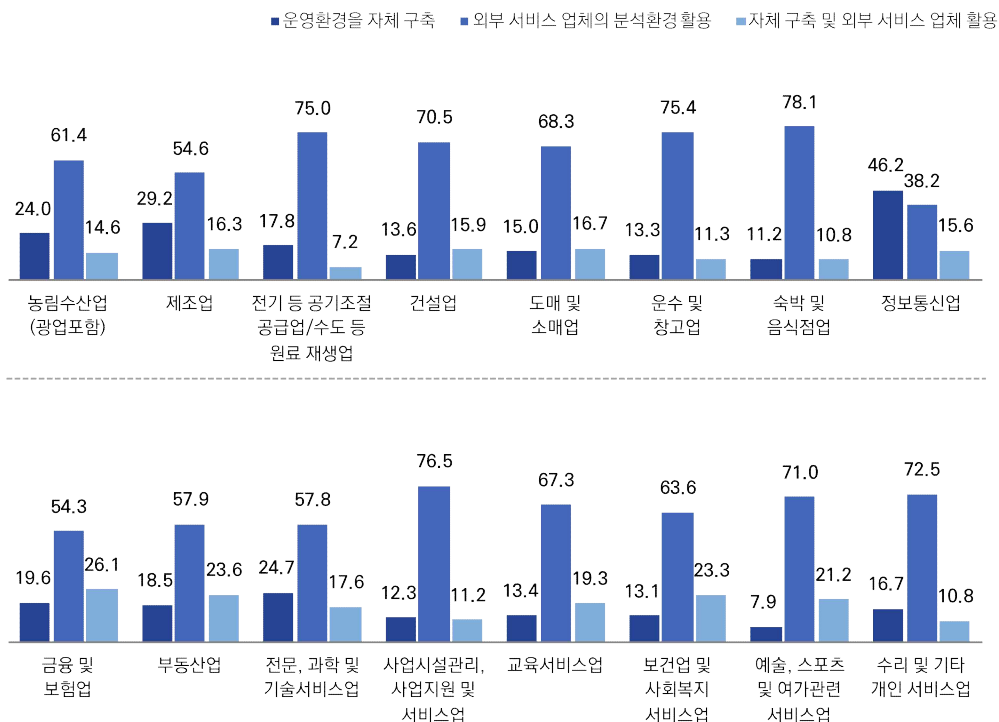
- '외부 서비스 업체 분석환경 활용'은 10~49명 규모 기업체(65.6%)에서 높게 나타남
- '운영환경을 자체 구축'과 '자체 구축 및 외부 서비스 업체 활용'은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(각각 22.6%, 27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'운영환경을 자체 구축'은 회사법인(21.6%)이 개인사업체(14.6%)보다 높게 나타남
- '외부 서비스 업체 분석환경 활용'은 개인사업체(67.4%)가 회사법인(62.9%)보다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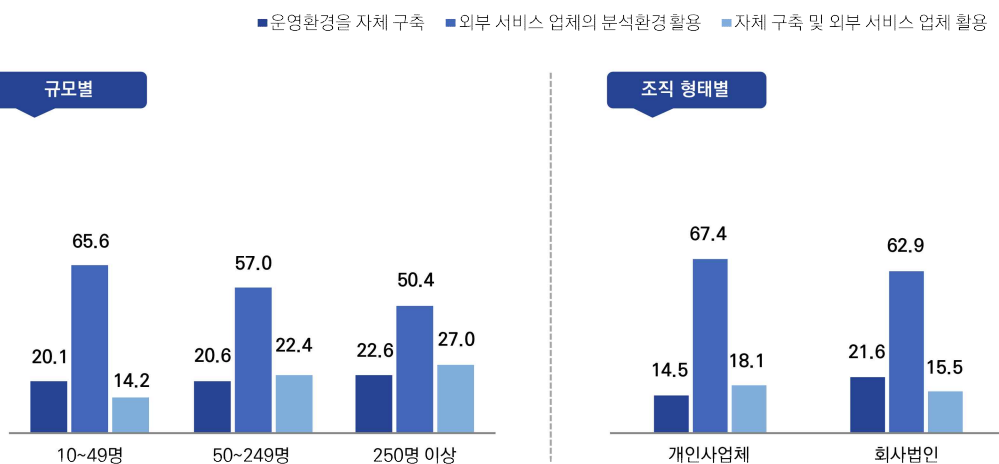
업종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형태

(단위 : 개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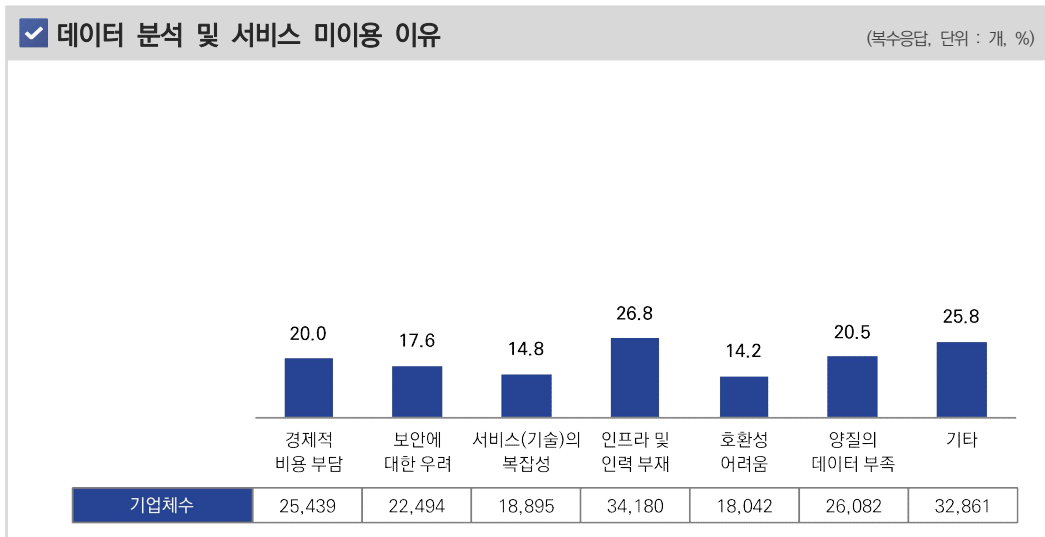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형태

(단위 : 개, %)



3.5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(복수응답)

-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미이용 기업체의 미이용 이유로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(26.8%)가 가장 높았으며, 그 다음으로 ‘양질의 데이터 부족’(20.5%),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(20.0%), ‘보안에 대한 우려’(17.6%)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기타 응답으로는 ‘이용 필요성 부재’가 높게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미이용 기업체
 ※ 주 : 1)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별 복수응답 수치임
 2) 전년 대비 보기 항목이 변경되어 시계열 비교 없음

[업종별]
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은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32.8%), 농림수산업(30.7%), 정보통신업(29.8%)에서 높게 나타남
-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는 교육서비스업(42.5%), 숙박 및 음식점업(31.1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은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에서 23.8%로 높게 나타남
-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는 10~49명 기업체(27.8%)에서 타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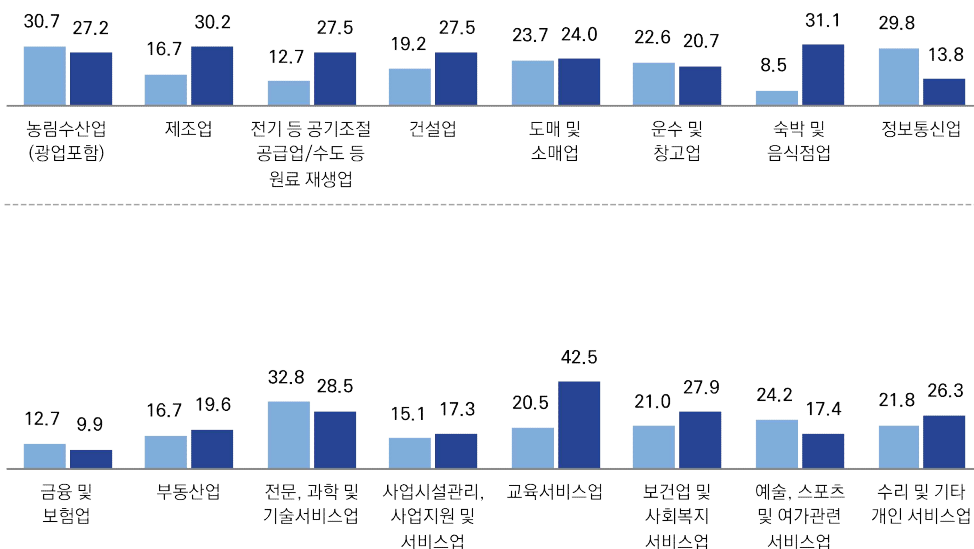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과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 모두 회사법인에서 각각 21.3%, 27.1%로 개인사업체보다 높게 나타남

업종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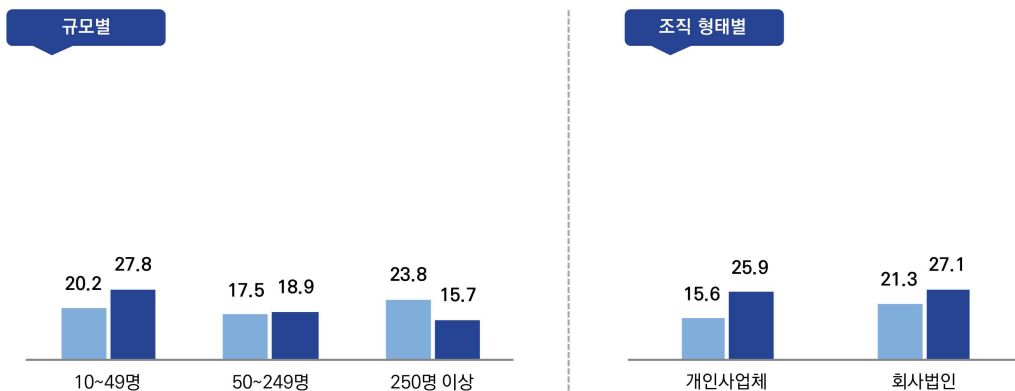
■ 경제적 비용 부담 ■ 인프라 및 인력 부재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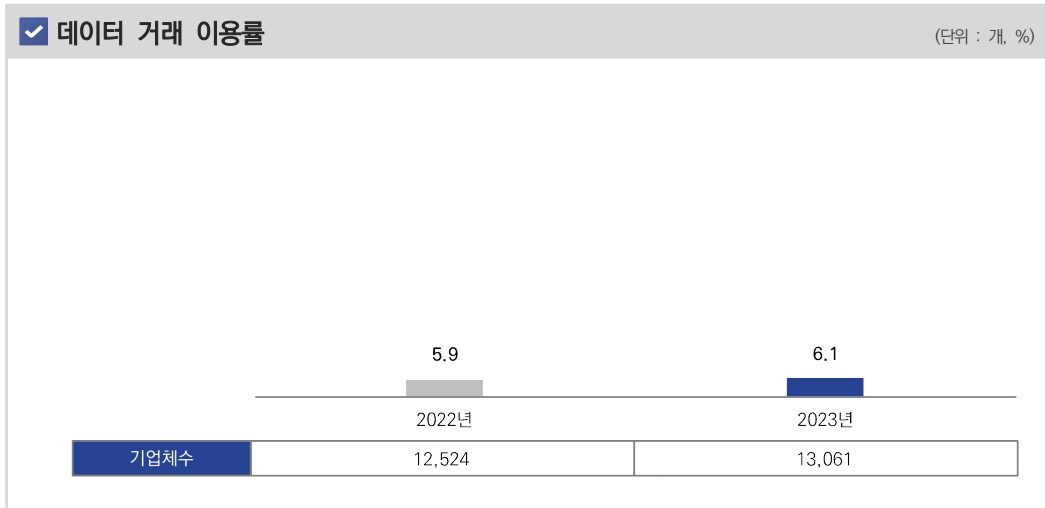
■ 경제적 비용 부담 ■ 인프라 및 인력 부재



4 데이터 거래

4.1 데이터 거래 여부

- 데이터를 구매 또는 판매한 경험이 있는 기업체는 6.1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금융 및 보험업(16.4%), 건설업(11.3%), 정보통신업(11.1%) 등의 순으로 데이터 거래 이용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2.0%), 부동산업(2.5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2.8%)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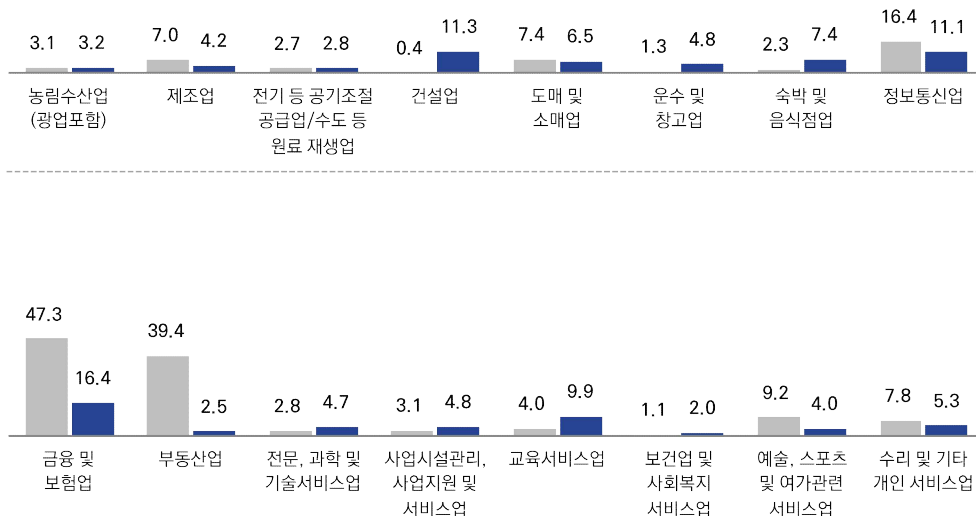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데이터 거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
- 250명 이상인 기업체에서 데이터 거래 이용률이 13.8%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이 6.8%로 개인사업체(3.6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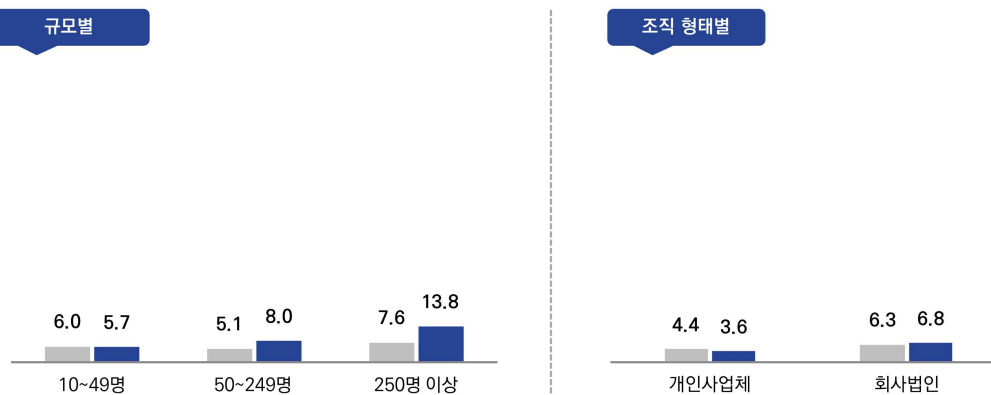
업종별_데이터 거래 이용률
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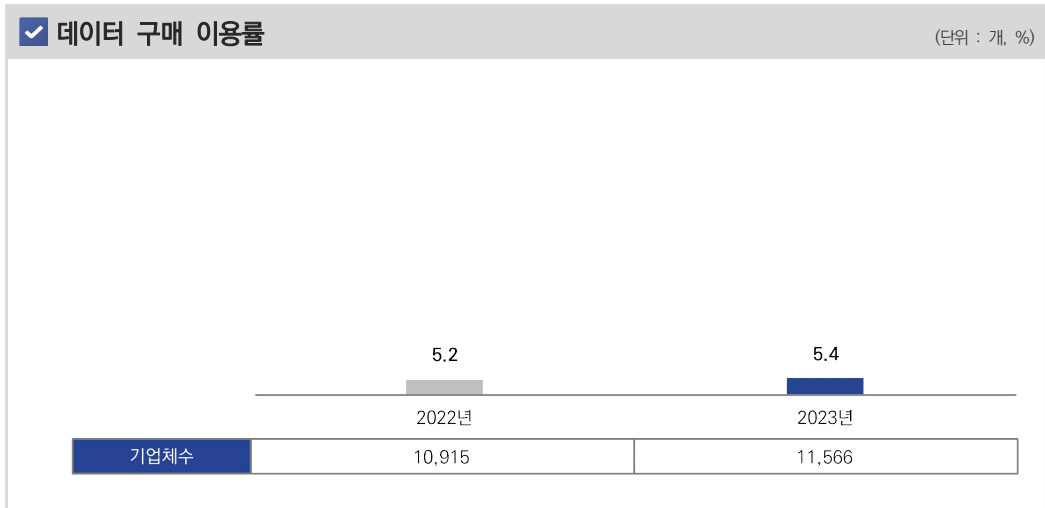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거래 이용률
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4.2 데이터 구매 여부

- 데이터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기업체는 5.4%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금융 및 보험업(13.9%), 건설업(11.1%), 교육서비스업(9.9%) 등의 순으로 데이터 구매 이용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1.5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2.3%), 부동산업(2.4%)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데이터 구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
- 250명 이상인 기업체에서 데이터 구매 이용률이 12.5%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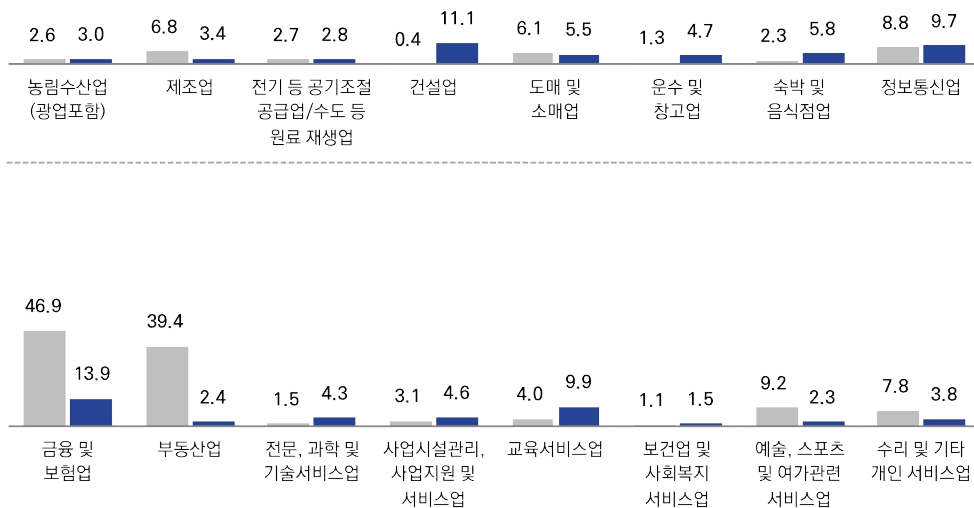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이 6.1%로 개인사업체(3.0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업종별_데이터 구매 이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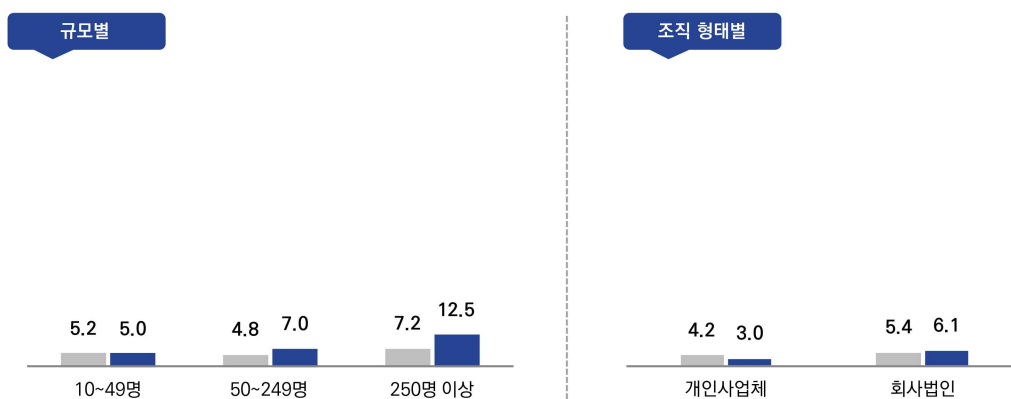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구매 이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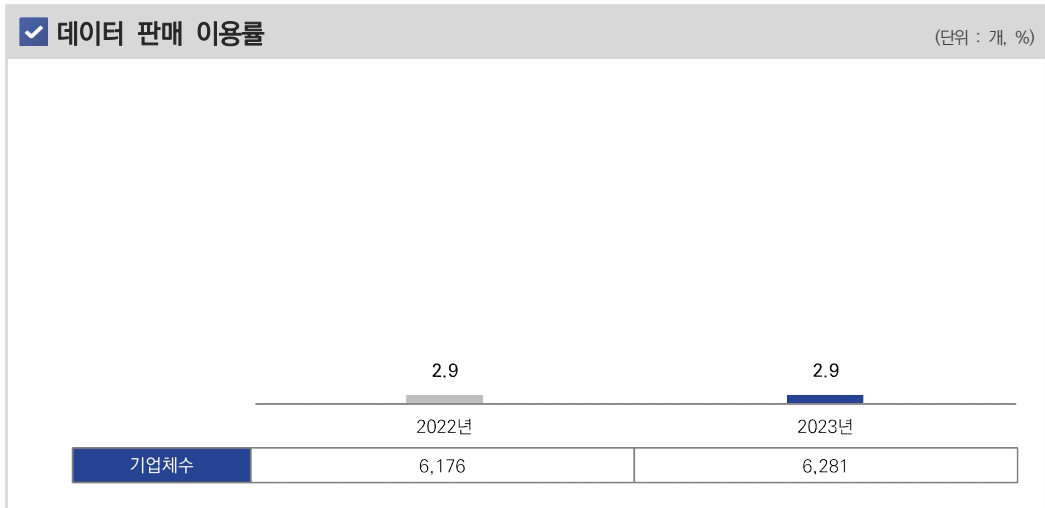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4.3 데이터 판매 여부

- 데이터를 판매한 경험이 있는 기업체는 2.9%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금융 및 보험업(15.2%), 정보통신업(5.6%), 건설업(4.4%) 등의 순으로 데이터 판매 이용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0.8%), 부동산업(0.8%)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1.7%)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데이터 판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
- 250명 이상인 기업체에서 데이터 판매 이용률이 13.4%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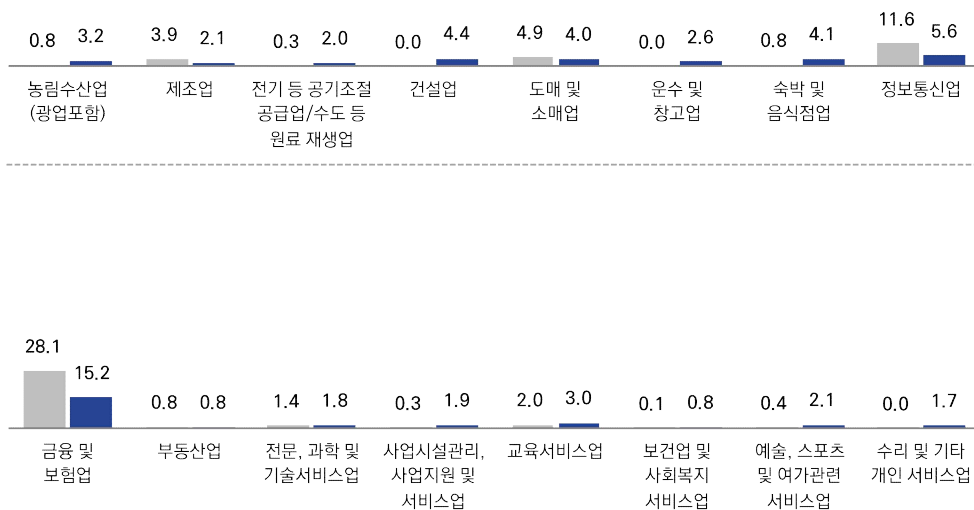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이 3.4%로 개인사업체(1.3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업종별_데이터 판매 이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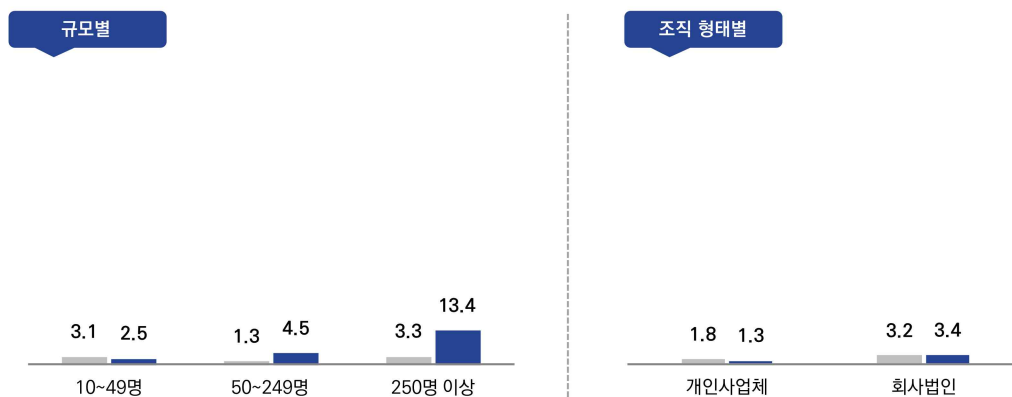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판매 이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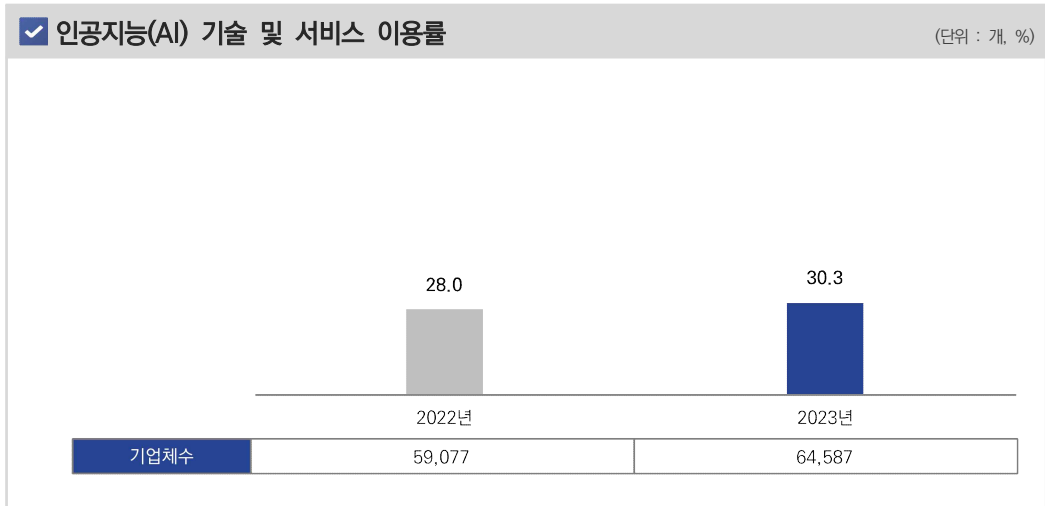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5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

5.1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

-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은 30.3%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은 2.3%p 증가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금융 및 보험업(52.4%), 정보통신업(49.5%), 교육서비스업(48.7%)에서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운수 및 창고업(16.6%), 농림수산업(19.2%), 부동산업(19.3%)에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- 종사자 규모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에서 63.3%로 타 규모 대비 가장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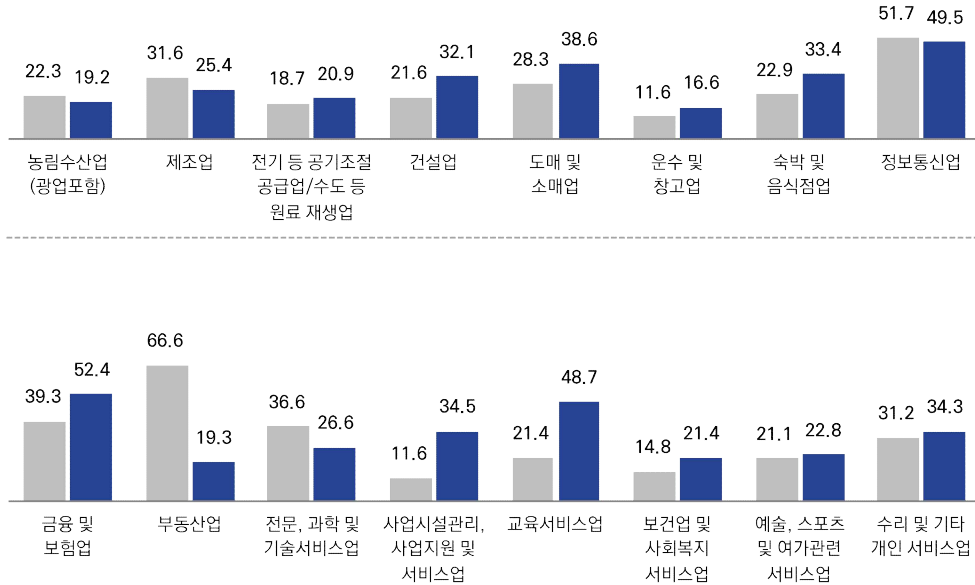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의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이 32.3%로 개인사업체(23.0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

✓ 업종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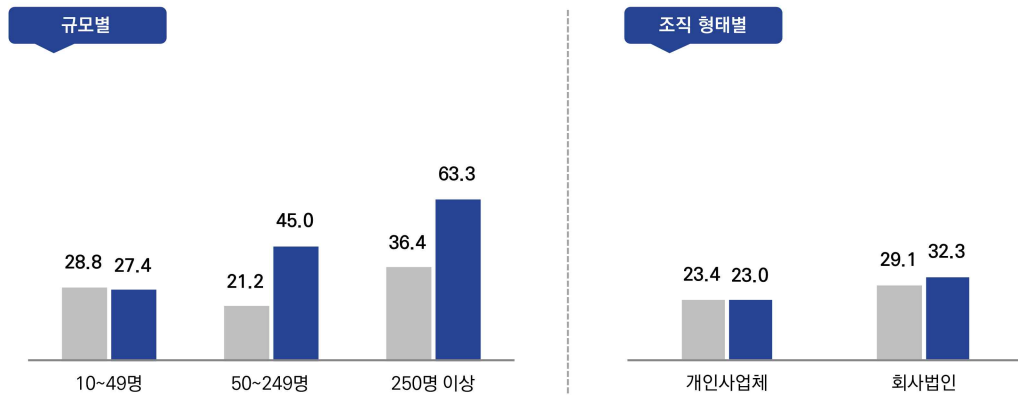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
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1. 정보화 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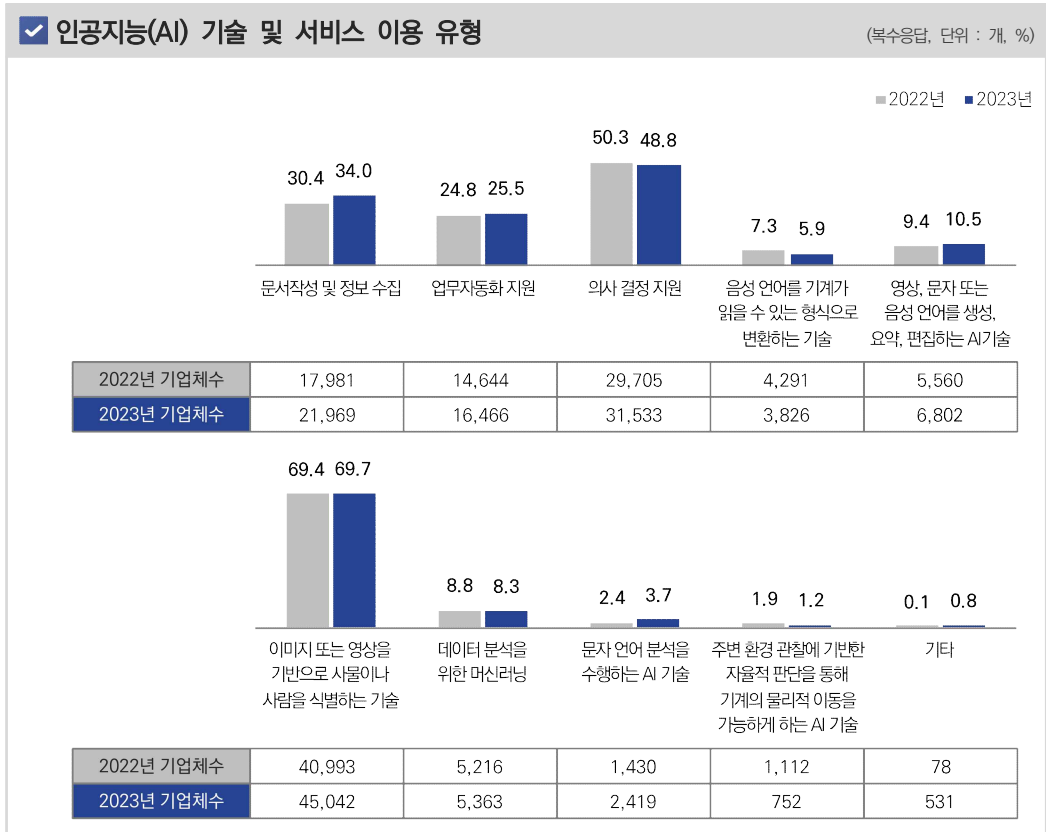
2. 정보화 응용

3. 지능정보기술 활용

4. 정보화 투자 및 효과

5.2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유형(복수응답)

-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하는 기업체의 이용 유형을 보면, ‘이미지 인식, 이미지 처리 등’ 분야가 69.7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다음으로 ‘의사 결정 지원’(48.8%), ‘문서작성 및 정보 수집’(34.0%), ‘업무자동화 지원’(25.5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유형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이미지 인식, 이미지 처리 등’ 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업(87.6%), 건설업(83.8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82.9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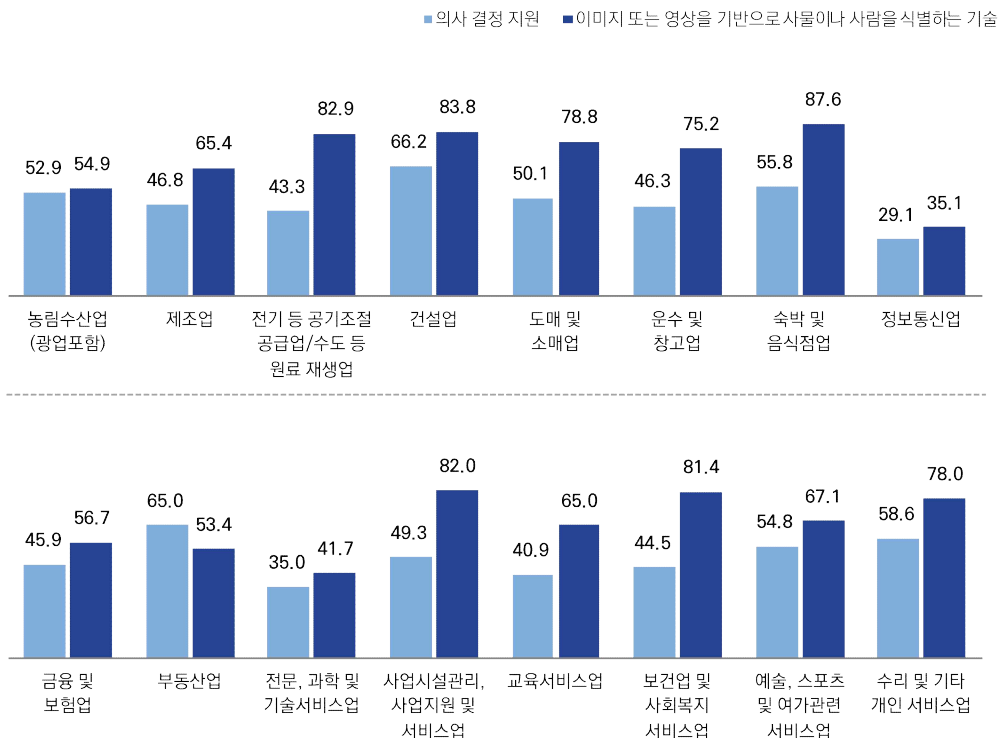
- ‘이미지 인식, 이미지 처리 등’ 분야는 종사자 규모 10~49명 규모 기업체(71.9%)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이미지 인식, 이미지 처리 등’ 분야는 개인사업체(79.8%), ‘의사 결정 지원’은 회사법인(49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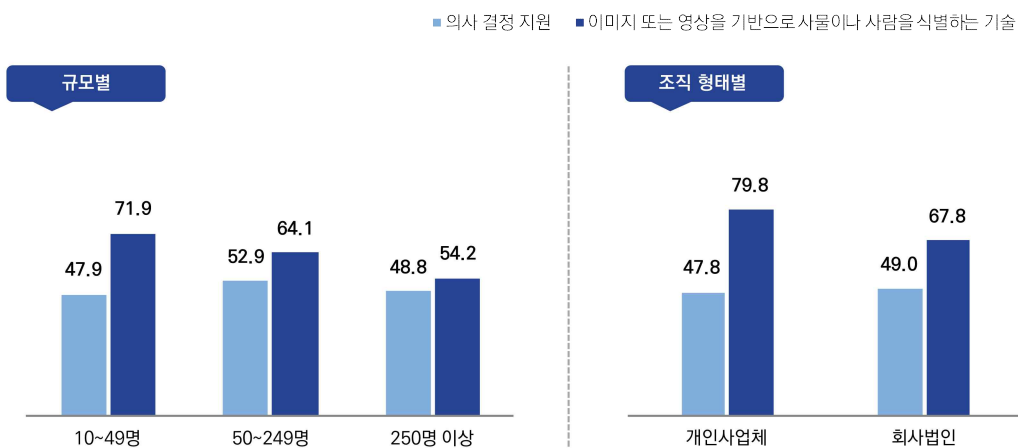
✓ 업종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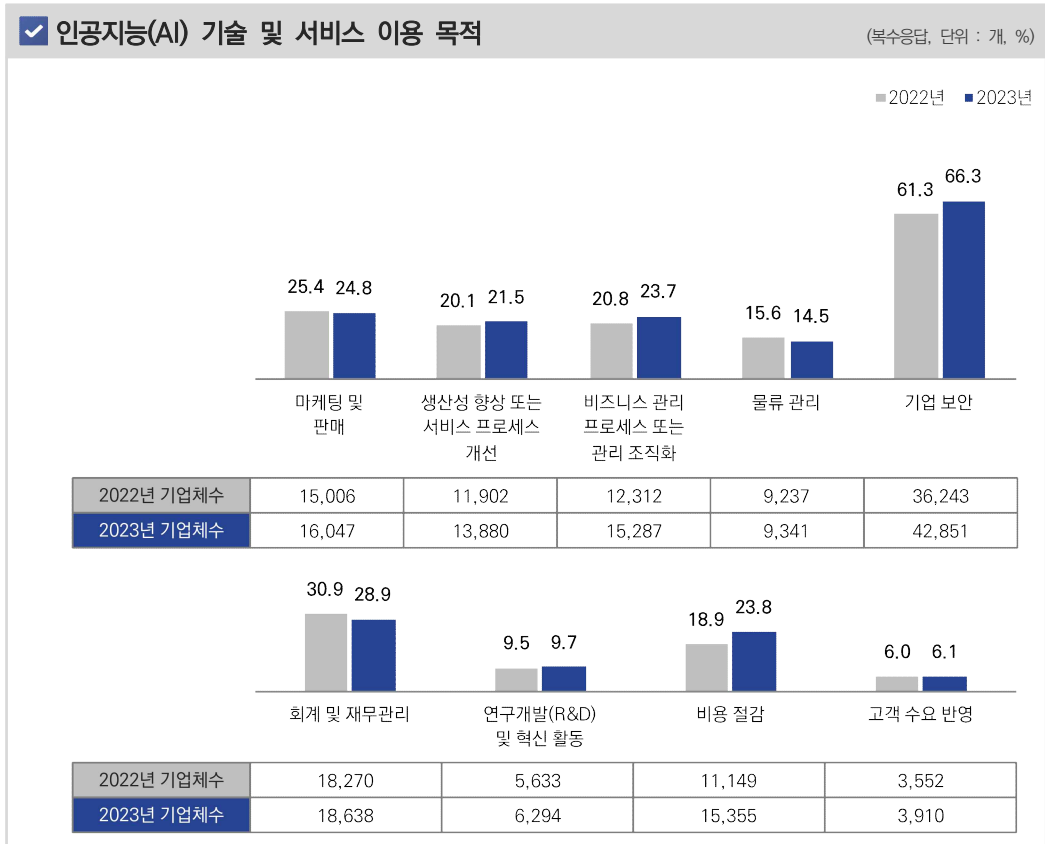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5.3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목적(복수응답)

-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는 ‘기업 보안’ 분야가 66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 ‘회계 및 재무관리’(28.9%), ‘마케팅 및 판매’(24.8%), ‘비즈니스 관리 프로세스 또는 관리 조직화’(23.7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목적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기업 보안’은 부동산업(86.5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86.3%), 건설업(81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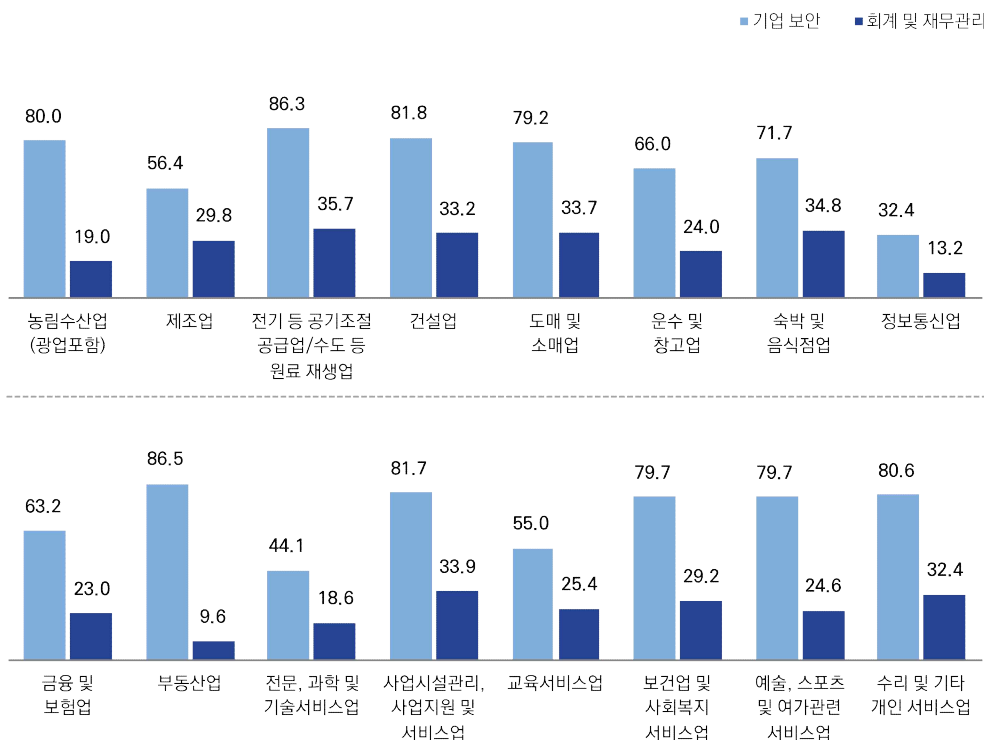
- ‘기업 보안’은 종사자수 10~49명 규모 기업체에서 68.8%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기업 보안’과 ‘회계 및 재무관리’ 모두 개인사업체(각각 71.0%, 32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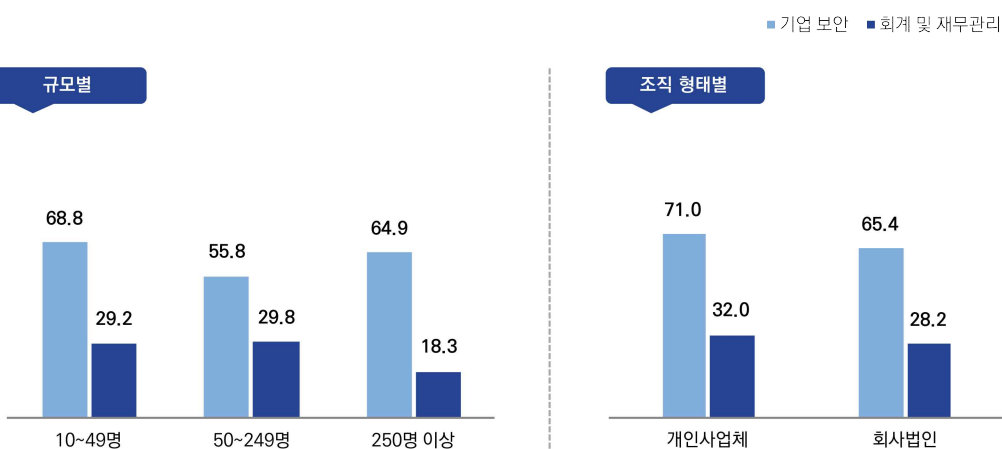
업종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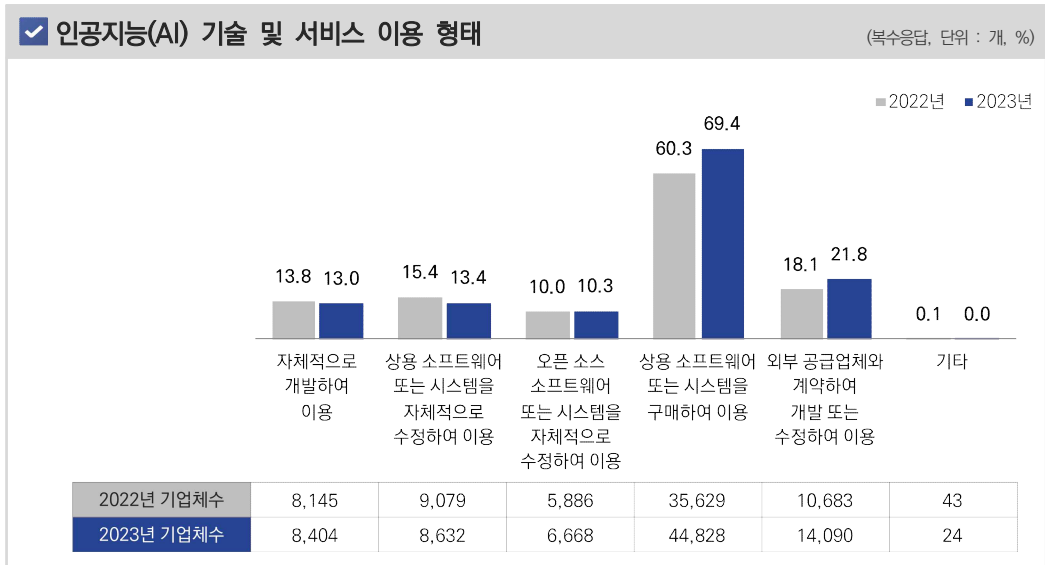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5.4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형태(복수응답)

-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체의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형태로는 '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구매'가 69.4%로 가장 높게 나타남
다음으로 '외부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이용'(21.8%), '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이용'(13.4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형태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'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구매'는 건설업(83.1%)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82.1%)에서 높게 나타남
- '외부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이용'은 농림수산업(30.5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(26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'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구매'는 종사자 규모 10~49명 규모 기업체(71.2%)에서 높게 나타남
- '외부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이용'은 종사자 규모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(27.9%)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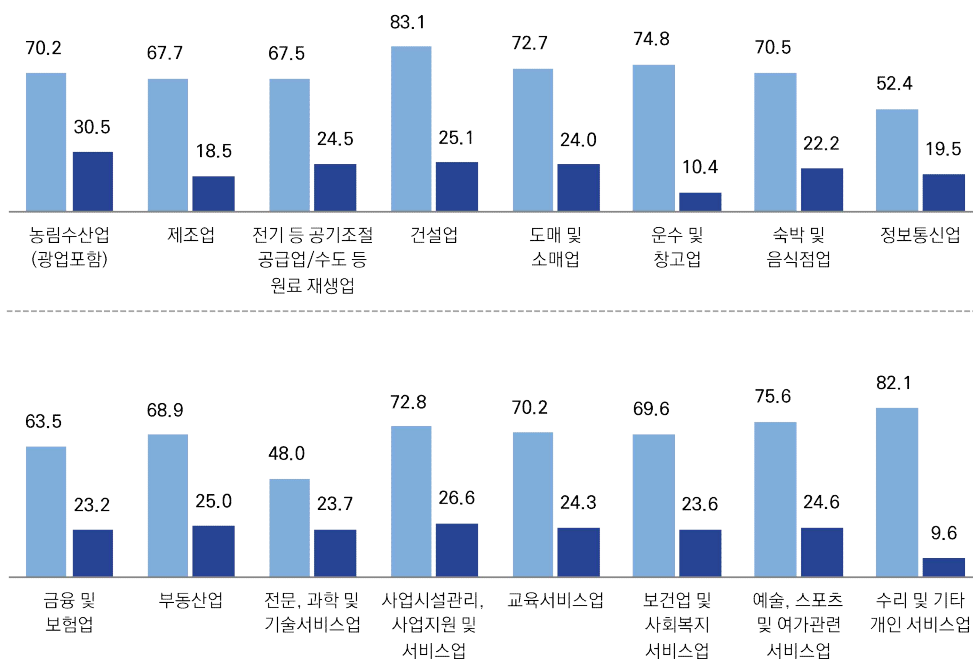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'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구매'는 개인사업체(70.2%)에서 회사법인(69.2%)보다 높게 나타남
- '외부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이용'은 회사법인(22.2%)에서 개인사업체(19.7%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업종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형태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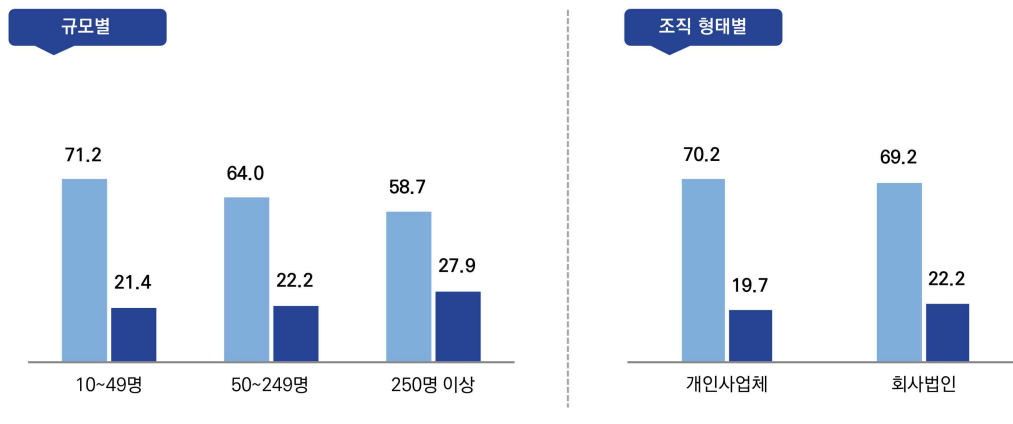
■ 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구매하여 이용 ■ 외부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개발 또는 수정하여 이용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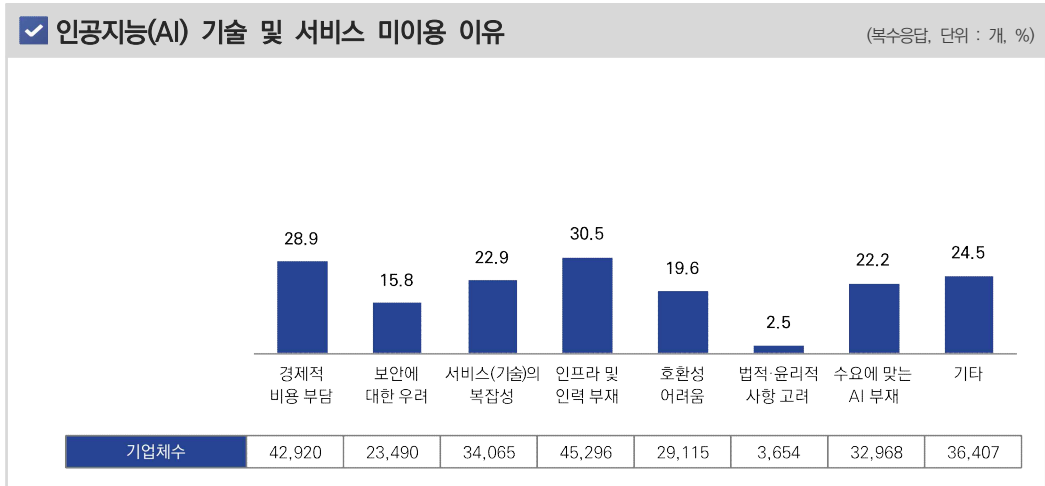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■ 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구매하여 이용 ■ 외부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개발 또는 수정하여 이용



5.5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(복수응답)

-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로는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가 30.5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(28.9%), ‘서비스(기술)의 복잡성’(22.9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- 기타 응답으로는 ‘이용 필요성 부재’가 높게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미이용 기업체
 ※ 주 : 1)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별 복수응답 수치임
 2) 전년 대비 보기 항목이 변경되어 시계열 비교 없음

[업종별]
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은 정보통신업(56.9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50.6%)에서 높게 나타남
-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48.3%), 정보통신업(46.2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37.9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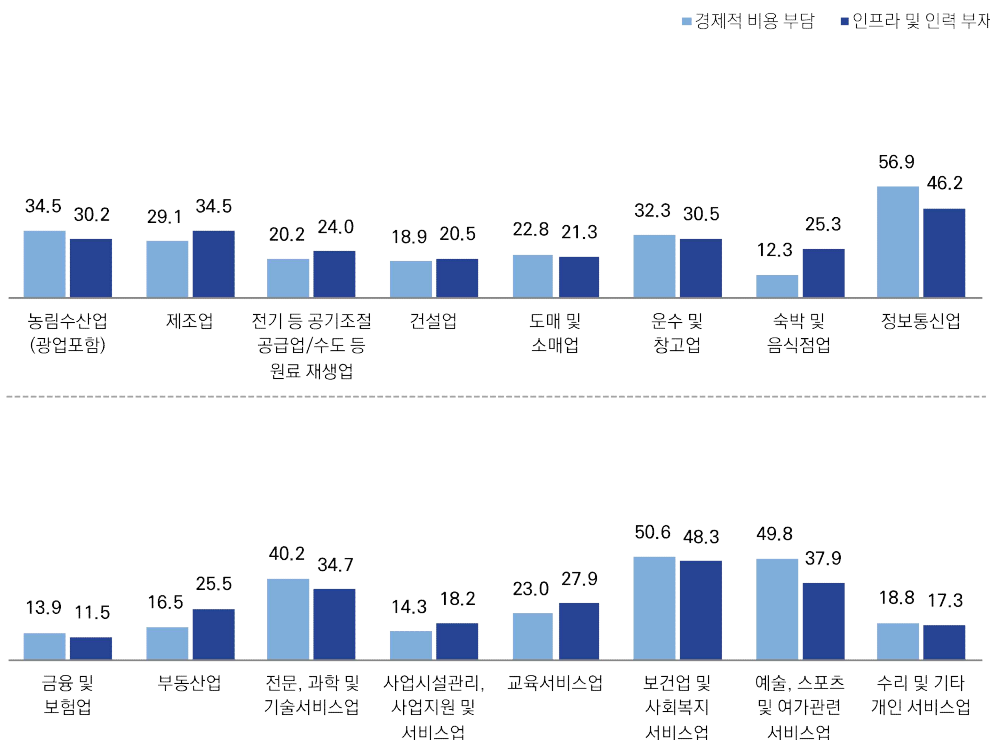
- 규모가 클수록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이라는 응답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은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에서 41.7%로 높게 나타남
- 반면,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는 10~49명 규모 기업체(30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과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 모두 개인사업체에서 각각 31.3%, 34.9%로 회사법인(각각 28.1%, 29.1%)보다 높게 나타남

✓ 업종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